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구원론적 관점에서 본 깔뱅의 신학이해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구원론적 관점에서 본 깔뱅의 신학이해

지도 이수영 교수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9년 12월 일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전 응 록

전응록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부심
부심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9년 12월 일



감사의 글

11년 전 광나루 동산을 오르게 하시고 이 부족한 논문이 나오기까지 항상 저를 이끌어 주시고 보살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시고 이 어려운 길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신 부모님께 더욱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학기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탓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좀 더 나은 논문을 위해 손수 자상하신 교정과 가르침으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이수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학기 동안 남편의 논문준비에 무거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참고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살난 딸 세영이, 그리고 이제 6달 뒤 세상에 나올 우리 둘째에게 부족하나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논문을 드립니다.

1999년 12월 2일
전 응록



개혁주의 학술원

I. 서 론

- | | | |
|---------------|-------|-------|
| 1. 연구의 목적 | ----- | 1 ~ 2 |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 2 ~ 3 |

II. 본 론

- | | | |
|--------------------------|-------|--------|
| 1. 깔뱅의 생애 약사 | ----- | 4 ~ 21 |
| (1) 유년기에서 회심까지 | | |
| (2) 하나님께 이끌린 인생의 두 가지 사건 | | |
| (3) 제네바에서의 개혁활동 | | |
| (4) 생의 말년 - 가장 어두웠던 시기와 | | |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

2. 기독교 강요의 전반적인 고찰 ----- 21 ~ 40

- (1) 역사
- (2) 사상적 배경
- (3) 저작목적

3. 기독교 강요의 구원론적인 성격 ----- 41 ~ 81

- (1) 제1권 :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 (2) 제2권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주 하나님
- (3) 제3권 : 화해의 실현 - 성령의 숨은 역사
- (4) 제4권 : 구원의 외적 수단 - 교회와 성례전

Ⅲ. 결 론 ----- 82 ~ 86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이제 우리는 얼마 뒤면 뉴 밀레니엄이라 부르는 새 천년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 새로운 시대를 얼마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상황이 유독 우리 교회와 교회속의 신앙인들에게선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나날이 줄어드는 교세와 세속화 되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매일 터져 나오는 교회와 신앙인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암울한 상상만을 가지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 암울한 시대를 이기고 어떻게 다가오는 새 천년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그 답의 실마리를 약 5세기 전 우리와 비슷했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교회는 있었으나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성직자는 있었으나 대부분이 부패했으며, 모두가 교인이었으나 참된 신앙인은 찾기 힘들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어두움을 뚫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앞서 질문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인가? 바로 바른 신앙의 회복이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바른 신앙의 회복을 추구했던 개혁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

특별히 이러한 점에서 장로교 전통에선 우리는 이러한 종교개혁자들 중 장로교의 가장 큰 기둥이며, 모든 장로교의 신앙원칙을 수립했던 장 깔뱅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현재 이 시대 속에서 장로교인들의 바른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 본 소고는 이러한 전제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의 위기상황을 개혁자 깔뱅의 신학사상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그의 신학사상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신앙의 틀을 마련했던 선배 신학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서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중세 암흑기에 분연히 일어났던 종교개혁가들의 주된 사상과 주장은 ‘이신칭의’ (以信稱義)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7성례, 공덕사상, 연옥설, 면죄부 등에 반대하여, 오직 신앙인은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올렸다. 즉 종교개혁가들의 중심 논의와 사상은 이신칭의를 통한 바른 신앙과 바른 구원론의 확립이었던 것이다.

장 칼뱅 역시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칼뱅은 그의 평생에 걸쳐 이 이신칭의의 믿음과 신앙을 조직화하고 체계화시켰으며, 이것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의 삶과 그의 모든 논문들, 주석서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 볼 기독교 강요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소고는 칼뱅의 신학사상을 구원론에 중심을 둔 것이라 보고 그의 신학사상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방대한 연구의 폭을 좁히고, 통일성 있는 연구를 위해 칼뱅 신학의 총체이며, 그 모든 요약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주교재로 칼뱅의 신학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첫 장에서는 칼뱅의 생애를 다룬다. 왜냐하면 모든 인물의 사상 연구에서 그러하듯이 그 인물의 삶을 제외하고서는 그의 사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기에, 칼뱅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그의 삶과 사상의 형성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기독교 강요의 선이해를 위해 기독교 강요의 전반적인 고찰을 한다. 기독교 강요 초판부터 최종판까지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중에 영향을 미쳤던 많은 사상적인 배경들, 그리고 그 저작목적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강요가 어떠한 책인지를 살펴려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로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각 권별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각 권들이 어떤 구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에 대한 정리와 이러한 칼뱅의 구원론적인 신학을 우리가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칼뱅의 생애 약사

모든 인물의 사상을 연구하는 데에 그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듯이 칼뱅 역시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떠한 여정을 걸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즉, 칼뱅의 생애를 특징지웠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배제하고서는 칼뱅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¹⁾

특별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의 신학사상의 중심이었던 하나님 주권 사상이나 구원론에 대한 생각들은 그의 평생에 가졌던 많은 만남들과 경험들, 그리고 연구들 속에서 이루어진 사상이기에 우리는 그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런 사상들의 원천과 그 발전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1) 유년기에서 회심까지

장 칼뱅은(Jean Calvin)은 삐까르디(Picardie) 지방의 노아용(Noyon)에서 1509년 7월 10일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뽕 레베크(Pont l'Evêque) 출신의 제라르 꼬뱅(Gérard Cauvin)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잔느 르프랑(Jeanne Lefranc)이었다.²⁾

어린 시절, 칼뱅은 주교관의 회계사로 일하던 아버지의 친분 관계로 알게된 몽모르(Montmor)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어느 정도 귀족적인 분위기와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자신의 교육의 장도 높일 수 있었다.³⁾

칼뱅은 자신이 태어난 도시에서 소년 학교인 까삐뜨(College des Capettes)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후, 1528년 8월, 몽모르 가의 세 젊은이들과 함께 빠리로 옮겨 라 마르슈 대학(Collège de la marche)에서 강의를 들었다. 그는 이곳에서 현대 교육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마뉘랭 꼬르디에(Mathurin Cordier)로부터 라틴어를 배웠고, 그와의 우정을 제네바까지 이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 비록 그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몽뎬귀 대학(the Collège de Montaigu)으로 학교를 옮겼다. 칼뱅이 이 몽뎬귀 대학에 온지 얼마 안되어 이 학교에는 신학자 존 메어(John Mair)가 취임했는데 메어는 위클리프와 후스, 그리고 루터의 개혁에 맞서 카톨릭 교리를 옹호하고자 1529년 4복음서 주석을 쓴 자로 이때 칼뱅은 메어의 강의를 통해 처음으로 루터의 이론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칼뱅은 메어를 통해 오컴주의적인 해석(the Occamist interpretation)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후에 그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초대 교부들의 사상 또한 접할 수 있었다.⁴⁾

하지만 이 시기 무엇보다 칼뱅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이미 종교개혁에 가담하였고, 인문주의에 대해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사촌 올리베땅(Olivétan)과 당시 프랑소아 1세

1) François Wendel,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역, 「칼빈의 신학서론」(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97), p. 17.

2) Emile Doumergue, 이 오갑 역, 「칼빈사상의 성격과 구조」(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5), p. 6.

3) J.T. McNeil, 양 낙홍 역, 「칼빈주의의 역사와 성격」(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p. 109.

4) Wendel, *op. cit.*, p. 26.



의 주치의였던 니콜라 콕(Nicolas Cop)과의 만남이었다. 특별히 유명한 인문주의자였던 기욤 뷔데(Guillaume Budé)와 에라스무스와 친분 관계가 두터웠던 콕과의 만남을 통해 갈뱅은 인문주의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루터와 멜랑히톤의 저작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개혁 사상과의 접촉이 젊은 갈뱅을 곧 바로 개혁의 길로 인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는 아직도 철저한 교황권의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같은 미신에서 스스로를 구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의 심정을 사돌레에게 보내는 서신(*Epistle to Sadolet*)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내가 곰곰이 내 자신에 대해 심사숙고하면 할수록, 내 양심은 더욱 더 쓰라린 가책에 시달린다. 그래서 그 자책감을 망각함으로써 나 자신을 속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구제나 위로는 내게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게는 더 나아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방법대로 조용히 반성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의 또 다른 형태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신앙고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본래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온갖 추한 것으로부터 떠나서 본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새로움에 반항하였고, 그 새로운 것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내가 기독교에 용감하게 저항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완고하여 자기가 일단 받아들였던 제도를 지탱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내 모든 삶이 오류와 무지 가운데 영위되어 왔음을 고백하는 것은 내게는 매우 싫은 일이었다.⁵⁾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그의 회심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록 4반세기가 지나 시편 주석에서 갈뱅은 자신의 회심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사용하는 표현을 미루어 볼 때, 로마 교회와 결별을 하기 이전 갈뱅은 어느 정도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있었고 비록 완전한 회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온건한 개혁주의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 내가 이 같은 교황권이라는 미신에 그렇게 완고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돌연한 회심으로 그 같은 깊은 수렁에서 헤어날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비해 너무 굳어버린 나의 마음을 깎으시고 유순하게 만드셨다. 이같이 참된 신앙심에 대해 약간의 맛을 미리 보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위하고 나서 나는 바로 신앙에 의해 유익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망에 불타 있었다. 그래서 다른 학문을 포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대로 다른 것들을 공부했다. 해가 가도 나는 거의 초심자에 불과했지만, 어느 정도 참된 교리에 대한 지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 내 주위에 모여들고 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⁶⁾

처음에 갈뱅을 성직자로 만들려고 했던 제라르 꼬뱅은 노아용 교회의 고위 직분자들과의 불화로 갈뱅이 가지고 있었던 성직록(benefices)⁷⁾이 철회될 것을 두려워하던 중 그의 결심을 바꿔 아들에게 법학을 할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 갈뱅은 저항 없이 1529년 오를레앙 대학교(Universités d'Orléans)로 옮겨 법학을 공부했다. 이 기간 갈뱅은

5) *Opp.*, 5, 412-*Opusc.* 194. Wendel, *op. cit.*, p. 47.

6) *Opp.*, 31 22. Wendel, *op. cit.*, p. 46.

7) 갈뱅은 당시 참사회의 검사였던 아버지 제라르 꼬뱅의 힘으로 3개의 성직록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이러한 성직록은 위법이었지만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명목으로 행사되어졌고, 이 성직록은 갈뱅에게 아버지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경제적 기반이었다.



당대 가장 훌륭한 법학자였던 삐에르 드 레뚜왈(Pierre de l'Etoile)에게서 법학을 배웠고 그를 크게 존경했다. 또한 이곳에서 갈뱅은 몽테귀보단 더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인문주의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인문주의의 세계로 더욱 빠져들게 되었다. 그리고 비록 그의 말년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긴 했지만 끊임없는 연구로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갈뱅은 학업에 열중했고, 특별히 헬라어의 기초를 이곳에서 터득했다.⁸⁾

1529년 학기 중 갈뱅은 부르주 대학교(Universités de Bourges)로 와서 로마법 교수로 유명했던 앙드레아 알치아티(Andrea Alciat)를 만나 로마법과 인문주의, 그리고 라틴어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⁹⁾ 하지만 그에게서 갈뱅이 받은 인상은 건방지고 헛되고 거친 모습뿐이었다. 알치아티는 갈뱅이 존경했던 오를레앙의 에뚜왈을 공식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대해 갈뱅은 동료 뒤세맹의 「에뚜왈에 대한 변호」(*Antapologia*)의 서문에서 에뚜왈을 ‘통찰력과 능력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에 있어 우리 시대의 최고봉’이라는 찬사로 에뚜왈을 찬양했다. 그리고 이곳 부르주에서 갈뱅이 더욱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법학보다는 어학과 문학, 그리고 고대 문화였다.¹⁰⁾

1531년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갈뱅은 고향 노아용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죽음의 순간을 통해 그동안 참사회에서 가했던 아버지에 대한 박해와 출교, 또 형 샤를르의 과문을 지켜보면서 갈뱅은 서서히 로마 교회로부터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이제 갈뱅은 자신을 운명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자유로이 진로를 택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취향을 따라, 문학과 인문주의에 몸을 담았다. 갈뱅은 프랑소아 1세의 명령으로 세워진 왕립 대학(the College of Royal Lecturers)으로 가서 볼마르에 이어 삐에르 다네(Pierre Danès)에게서 헬라어를, 그리고 프랑소와 바따블(Francois Vatable)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웠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의 결과로 1531년과 1532년 겨울 동안 그의 최초의 저서를 출판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Commentaire sur le Traité de la Clemence de Sénèque*)이다.¹¹⁾

일반적으로 이 책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갈뱅의 다른 저작들에 비해 그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 되어왔다. 하지만 이 관용론 주석은 “한 사려 깊은 학생이 쓴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 기보단 훨씬 그 이상의 작품이다. 갈뱅은 이 책에서 당대의 최고의 인문주의자들이었던 에라스무스와 발라(Valla), 그리고 뷔데(Budé)가 완성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책을 써 내려갔으며 그의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문체로 책을 구성하였다. 물론 왜 갈뱅이 이 주석서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의 주장처럼, 세네카가 네로 황제를 설득하여 백성들에게 보다 관대하도록 할 목적으로 쓴 것처럼, 갈뱅 역시 프랑소아 1세로 하여금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에 대하여 융통성 있고 관대한 정책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¹²⁾

특별히 이 책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섭리에 관한 부분인데, 갈뱅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우연을 배제하고 세상 군주들을 지배하는 초자연적 섭리의 존재를 공

8) J.T. McNeil, *op. cit.*, p. 117.

9) Doumergue, *op. cit.*, p. 9.

10) J.T. McNeil, *op. cit.*, 119.

11) Wendel, *op. cit.*, pp. 33~34.

12)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추론일 뿐, 직접적으로 책 속에서는 이러한 의도가 안보일 정도로 감춰져 있다.



정하는데, 이것은 갈뱅의 최초의 섭리관으로 주목할 만 하다.¹³⁾ 그리고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장차 자신의 신학사상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우구스티누스를 이미 이 첫 저작에서부터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증거가 갈뱅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교부들에 대한 맹목적 숭배를 뒷받침 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이 젊은 저작에게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사상의 독자성이 보이며,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3년 후 그가 기독교 강요를 집필할 때, 그보다 앞선 사상가들의 어느 특정한 개념들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사상을 자유로이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이, 또한 여기에서 그들과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¹⁴⁾ 즉 갈뱅은 이전 사상가들의 철학과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맹목적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선용하였던 것이다.¹⁵⁾ 이러한 입장을 갈뱅은 1539년 기독교 강요 초판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가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부류의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놀랍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고, 심지어는 우리의 지성을 황홀케 한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로부터 우리가 성경으로 돌이킨다면 우리가 의도하던 안하던 간에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깊이 관통하여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모든 철인들과 수사학자들의 힘은 성경과 비교하면 한낱 연기처럼 보인다.¹⁶⁾

하지만 이처럼 뛰어났던 역작은 모든 지역에서 냉담한 반응을 받았고, 평생 자신의 학문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던 갈뱅 자신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학문적인 굴욕을 경험했다.¹⁷⁾

그즈음, 그의 삶 속에선 급격한 하나의 종교적 변화(évolution religieuse)가 일어났다. 1533년에 빠리 대학교 총장인 니콜라 콕(Nicolas Cop)을 위해서 갈뱅은 콕이 같은 해 11월 1일 연설한 유명한 연설문을 작성했다.¹⁸⁾ 하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어 갈뱅은 콕과 그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수배령을 받게 되었고, 이를 피해 빠리를 떠나 앙굴렘(Angoulême)과 네락(Nérac)에¹⁹⁾ 갔는데, 거기서 그의 신학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르페브르 데따뵈(Lefèvre d'Étaples)을 만났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갈뱅의 직접적인 회심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시기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믿음에 확고한 신념이 서 있었으며, 르페브르와의 만남과 또, 앙굴렘 등지에서의 연구를 통해 그의 믿음이 종교개혁 사

13) Wendel, *op. cit.*, pp. 36~39. 참조

14) Ibid.

15) 일례로 갈뱅은 스토아 철학의 자연법 사상을 기독교 원리에 적용했을 뿐 아니라 스토아 철학적 운명 개념을 그의 예정론에 도입하기도 했고, 에라스무스의 원문에 의해 영감을 받은 귀절들을 그대로 기독교 강요에 사용하기도 하였다(*Inst.*, I, 16, 8.).

16) John Calvin, F.L. Battles tra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86), I, 8, 1. 이하 *Inst*로 약함.

17) J.T. McNeil, *op. cit.*, p. 121.

18) 여기에 대해선 1575년 드 베즈(De Bèze)가 처음으로 이것을 주장한 이후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 왔으나, 요즘엔 거의 부인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갈뱅이 이 연설문에 깊이 관여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19) 앙굴렘과 네락은 빠리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들로서 당시 인문주의자들과 복음전파자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 여왕의 영지로 많은 인문주의자들과 복음전파자들이 모여들었던 곳이다.



상으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추정할 수 있다.²⁰⁾ 그리고 이러한 그의 회심의 모습은 갈뱅이 1534년 5월 4일, 거리낌없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아용의 성직록을 사임한 것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²¹⁾

이처럼 갈뱅의 회심은 서서히,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교황에 대한 비타협적인 비난을 담은 루터가 쓴 글들의 호소력, 에티엔 드 라 포르쥬(Etienne de la Forge) 및 다른 경건한 프로테스탄트들과의 접촉, 성경적 신앙을 위한 순교자들의 용감한 희생, 반(反)계몽주의(obscurantism)와 성자숭배, 행렬들, 성물(relics), 면죄부, 의식(ceremonial), 친구들과의 회합, 성경과 교부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 이 모든 요소들이 축적되어 그의 영혼에 압박을 가했고, 결국 저항의 장벽을 깨뜨린 것이다.²²⁾

(2) 하나님께 이끌린 인생의 두 사건

1534년 10월 18일 프랑스 빠리 등지의 많은 집 대문에 미사를 반대하는 격문이 붙어있는 것이 발견되자 프로테스탄트들의 상황은 갑자기 심각해 졌다. 여러 주가 지난 후 -아마 1535년 초에- 프랑스의 관할권 밖에 있었던 갈뱅은 친구 뒤 튀예(du Tillet)와 함께 메쯔(Metz),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그리고 바젤(Basel)로 여행했다. 이 여행은 갈뱅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박해의 위협을 느낀 것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²³⁾

하지만 고국에서 들려오는 계속된 박해 소식은 소심한 인문주의자로 남기 원했던 갈뱅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았다. 갈뱅은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소요리문답서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이를 대변할 수 있는 변증서로 서둘러 출판할 것을 결심하고 바젤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이 작업에 착수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살펴려고 하는 기독교 강요의 초판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536년 3월 바젤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 초판은 이후 몇 번의 개정판을 거쳐 라틴어 최종판은 1559년에, 그리고 그것의 프랑스어 번역판은 1560년에 각각 발행되었다.

갈뱅은 1536년 2월 바젤을 떠나 프랑소아 1세의 누이인 르네(Renée) 공주를 만나보기 위해 페라르(Ferrare)로 갔다. 그 후, 갈뱅은 마지막으로 노아용을 잠시 방문한 후, 영원히 프랑스를 떠났다. 그는 바젤로 가려했으나, 폭동으로 길이 막혀 리옹(Lyon)과 제네바(Genève)를 거치는 긴 우회로를 택해야 했는데, 바로 이곳 제네바에서 갈뱅은 1536년 9월 파렐(G. Farel)에 의해 붙들리고 말았다.²⁴⁾

누군가가 갈뱅 일행이 제네바에 도착한 것을 파렐에게 알렸고, 이를 들은 파렐은 이제 갓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청년 개혁자를 잡기 위해 서둘러 갈뱅이 머물고 있던 숙소를 방문했다. 갑작스러운 방문과 함께 있어달라는 요청에 갈뱅은 놀랐지만, 차분히 그의 연구 계획들과 취향을 파렐에게 설명하였다. 하지만 갈뱅의 설명보다 파렐의 요구는 더욱 강력했고, 급기야 자신의 통사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젊은 청년에게 파렐은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대

20) 갈뱅은 앙굴렘 대성당의 참사회원으로서 자기 부친으로부터 많은 책을 상속받은 친구 루이 뒤 튀예(Louis du Tillet)와 함께 하면서 이 기간 많은 책을 연구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곳에서 그의 기독교 강요의 구상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21) Doumergue, *op. cit.*, p. 10.

22) J.T. McNeil, *op. cit.*, p. 133.

23) J.T. McNeil, *op. cit.*, pp. 138~139.

24) Theodore Beza, 김 동현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사상」(서울 : 목회자료사, 1999), p. 38.



신하듯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지금 주의 사업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²⁵⁾

이런 엄청난 우리와 같은 소리에 칼뱅은 당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나는 충고와 권유 때문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저 높은 데서부터 손을 내밀어 나를 쳐 굴복시키는 것과 같은 무서운 선언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²⁶⁾

칼뱅의 첫 번째 소명, 그것은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끌린 것이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음성이 그에게 고백되었기에, 또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칼뱅은 그 험난한 개혁의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었다.

칼뱅은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1536년부터 1538년까지 체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네바시는 두 개혁자의 사상을 온전히 수용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다. 시의회와 개혁자들은 성만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에 사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은 제네바에 정착한 지 2년만인 1538년 8월 제네바에서 추방당했다. 그리고 파렐은 뉘샤렐로, 그리고 칼뱅은 그 다음 달인 9월에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로 갔다. 칼뱅은 여기에서 목사와 교수로서 일했다. 그는 최초의 프랑스인 개혁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교회는 모(Meaux) 교회와 프랑스 내의 다른 교회들의 모(母)교회 역할을 했다. 그리고 칼뱅은 이곳에서 1540년 8월 부처의 중개로 미망인 이데레트 드 뷔르(Idelette de Bure)와 결혼했다.²⁷⁾

스트라스부르 시절, 칼뱅은 개신교를 대표해서 프랑크푸르트 회담(1539), 아그노 회담(1540), 보름스 회담(1541), 라티스본 회담(1541) 등에 참석을 하며 개혁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가진 멜랑히톤과 부처(Martin Bucer)와의 만남은 그의 신학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²⁸⁾

하지만 이 어간에 그에게는 두 번째 소명이 다가 왔다. 칼뱅을 쫓아냈던 제네바 시의회의 주동자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실각을 했고, 얼마 못 가서 제네바는 무질서 속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제네바가 다시 칼뱅을 부른 것이다.²⁹⁾

하지만 이 새로운 요청에 칼뱅은 이를 동안이나 “자신이 자기의 절반 정도만 주인이었을 뿐인” “당혹감”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는 스스로 “제네바에 가는 것보다 백 번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 속에서도 칼뱅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그 뜻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칼뱅은 이러한 그의 심정을 1540년 10월 24일 파렐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25) Doumergue, *op. cit.*, p. 13.

26) Ibid.

27) Doumergue, *op. cit.*, p. 11.

28) Wendel, *op. cit.*, p. 75.

29) Beza, *op. cit.*, p. 58.



“내 정신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 제네바로 다시 가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아마 나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심장을 주님께 희생제물로 바칩니다(J'offre à Dieu mon coeur comme immolé)” .³⁰⁾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썼다.

“그래서 나는 내 영을 치고 묶어서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므로, 그 사람들의 지시에 나를 의탁합니다.” ³¹⁾

철저한 자기부정, 그것은 바로 칼뱅을 하나님 중심적인 인물로 만든 가장 주된 요소였으며, 반대로 이처럼 그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인물이었기에 그와 같은 자기부정이 가능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 중심사상과 자기부정 사상은 이후 그의 신학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구원론과 예정론에 있어서 그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3) 제네바에서의 개혁활동

1541년 9월 13일 칼뱅은 아무런 수행원 없이 제네바로 들어갔다. 하지만 제네바에서의 새롭게 시작된 그의 개혁생활은 순탄치 만은 않았다. 오히려 많은 고난과 넘어야 될 험난한 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의회는 다시 돌아온 개혁자의 뜻에 순순히 순종하지 만은 않았다. 그들은 목사 안수식을 반대했고, 매주일 성찬식을 하자고 했던 칼뱅의 건의를 일년 네 차례로 축소시켰다.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개혁을 추진시켜 나갔다. 도착한 지 한달 후 칼뱅은 서둘러 “교회칙령”(Ordonnances ecclésiastiques)을 만들어 교회 내에 4개의 직제 목사, 박사, 장로, 교사를 두었고, 목사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세웠으며, 종무원(Consistoire)을 구성, 교인들을 위한 치리와 훈육의 기관으로 삼았다. 특별히 이 종무원들은 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진 교리를 실천하도록 독려하며, 망설이는 자들을 데려오고, 약자들과 실족한 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껴안는 직무를 행하는 ‘영혼의 치유’(cure d'âme)자들이었다.³²⁾

그러나 칼뱅 개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무원의 활동 역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1519년, 사보아인들(savoyardes)의 지배에 대항했던 한 애국지사의 아들로 제네바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물이었던 필리베르 베르뜰리에(Philbert Berthelier)는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고 종무원의 훈계를 지키지 않다가 출교를 당했다. 하지만 뒤에 살필 세르베투스 사건으로 칼뱅이 힘들어지고 시의회 역시 칼뱅의 적대자들이 우세했을 때를 틈타 베르뜰리에의 자신의 성만찬 재참여를 시의회에 건의했다. 그리고 시의회는 이 건의안에 칼뱅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양심만 깨끗하며, 성만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면 그는 성만찬을 받을 수 있으며,

30) Herminjard, IV, 339. Cadier, *op. cit.*, p. 120.

31) Ibid.

32) Cadier, *op. cit.*, pp. 123~124.



그것을 받는지 말든지 그 자신의 일로 맡겨둔다.” 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 이것은 순수하게 교회에 속하는 영역에서도 교회의 권위 위에 서려는 시의회의 계획된 의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칼뱅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칼뱅은 이러한 시의회의 결정에 단호히 거절을 표명했다.

“주님의 성찬을 그렇게 부끄럽게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기를 결정하며, 백 번이나 죽어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끄러운 우롱에 예속시키지는 않겠다.” 33)

더 나아가 그는 다음 날 아침 생-피에르 대성당의 강단에 올라 정황을 모르는 회중들 앞에서 다시 그의 뜻을 일갈했다.

“나는 크리소스툼(Chrysostome)의 전례에 따른다. 나는 내 손으로 정죄된 멸시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건네주느니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할 것이다.” 34)

그리고 다시 오후의 강단에 서서 그가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각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내가 제네바에서 해야 하는 마지막 설교가 지금 하는 이 설교인지 모르겠다. 내가 내 자신이 사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일이 아닌 것을 하라고 내게 강요한다면, 나로서는 그렇게 말고는 다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5)

이러한 그의 단호한 태도는 시의회를 누르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칼뱅을 비판하는 이들은 그의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성격을 비난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칼뱅이 그의 신념에 확신이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그가 성경을 가장 중요시했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제일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하기에 그는 끊임없이 생-피에르 강단 위에서, 또 그의 저술에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만이 구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복종되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36)

이후에도 칼뱅의 진리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다. 까스텔리용(Castellion)과 벌인 아가서와 사도신경 논쟁, 제롬 볼섹(Jérôme Bolsec)과의 예정교리 논쟁 등이 계속되었고, 비록 여기에서 이를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이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칼뱅은 가장 성서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해 나갔으며, 이러한 논쟁들을 겪으면서 더욱 그의 사상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다. 37)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발전은 그가 계속해 집필해 나간 기독교 강요와 그의 주석서들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4) 생의 말년 - 가장 어두웠던 시기와 아름다웠던 시기

칼뱅의 시절 중 가장 어두웠던 시기, 더불어 많은 이들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들었던 사건

33) Ibid., p. 130.

34) Ibid.

35) Ibid.

36) Ibid.

37) Bèze, *op. cit.* pp. 89~95참조.



을 든다면 그것은 단연코 미셸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의 사형 사건이라 할 수 있다.³⁸⁾ 물론 그것이 앞서 약술한 칼뱅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칼뱅의 생애를 가장 어렵게 한 부분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칼뱅의 잘못으로, 그리고 칼뱅을 잔인한 인물로 규정짓는 잣대로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먼저, 그 처형에 대한 점이다. 1553년 세르베투스의 고발자가 칼뱅이었고, 또한 칼뱅 역시 그의 사형을 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사형의 선고자는 칼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세르베투스가 삼위일체에서 성자의 영원성을 부인하고 유아세례를 비방한 것으로 칼뱅에게 대적하여 그 미움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그의 직접적인 사형의 이유는 아니었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들, 그들은 당시 칼뱅의 적대자들이었던 제네바 시의회였고, 그들 중에는 세르베투스의 친구들이었던 자유당(Libertins)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³⁹⁾

또한 이러한 시의회의 사형 결정 역시 당시 시대적 상황이 종교재판에서 화형이 횡행하던 시기라는 점을 인식할 때, 세르베투스의 사형은 칼뱅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오류라 할 수 있다.⁴⁰⁾

다음, 칼뱅의 잔인함에 대한 문제이다. 많은 이들은 이 화형사건을 두고 칼뱅의 잔인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칼뱅 자신은 세르베투스의 화형을 끝까지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해 8월 20일 파렐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세르베투스가 사형에 처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처형의 잔인함(atrociatatem) -화형- 은 면제해 주기를 원합니다.”⁴¹⁾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책망하며 엄격하기를 권고한 파렐에게 자신의 뜻을 끝까지 꺾지 않고 다음의 글로 회답했다.

“내일 세르베투스는 처형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처형의 방법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헛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화난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들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지.”⁴²⁾

이처럼 칼뱅은 잔인함이 아닌 오히려 관대함을 가지고 세르베투스를 대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을 인정한다해도 이 화형사건이 정당화 될 순 없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개혁가의 깊이 있는 행동을 지나친 편견과 오해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한다.

반면 이러한 고통과 수난의 세기를 거쳐 말년에 이른 칼뱅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임종을 앞 둔 1년 간⁴³⁾ 칼뱅은 두통과 결석증, 향문 부

38) Doumergue, *op. cit.*, p. 141.

39) *Ibid.*, *op. cit.*, p. 142.

40) Cadier, *op. cit.*, pp. 170~171.

41) *Opera*, XIV, p. 590, 613, 657. Doumergue, *op. cit.*, pp. 141~142.

42) *Ibid.*



분의 정맥 케양, 통풍, 삼일 열과 사일 열, 결핵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깔뱅은 밤낮으로 일했고, 어떤 때는 매일 설교했고, 중요하고도 방대한 저술들에 매달렸으며, 여기 저기 편지하고 답장하는 일을 계속했다. 많은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노년의 개혁자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스스로의 사명을 다하려고 결심이라도 한 듯 더욱 열심히 그의 일에 임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⁴⁴⁾

또한 죽기 일주일 전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후배 목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나눌 정도로 그의 자상함 역시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깔뱅은 그들에게 자신의 제네바 생활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들려주었다.⁴⁵⁾

그리고 마지막 그 날, 1564년 5월 27일 이제 자신의 한 지체도 움직일 수 없는 채로 침상 위에 누운 제네바의 개혁자는 완전한 의식과 판단력은 소유한 상태에서, 매우 평화롭게, 죽는 다기보다는 오히려 잠자는 것 같이 그렇게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드 베즈가 말한 대로 “그는 전에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완전한 모델이 무엇인지 보여 주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는 죽음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특별한 모델이 되어준”⁴⁶⁾ 모습이였다.

한 인간의 삶에 가장 특징적인 행동이 죽음이며, 그의 죽음이 그의 생애를 나타내 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깔뱅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금 아름답고 빛났던 그의 생애를 체험하게 된다.

우리는 이상에서 400여 년 전 한 개혁가의 인생의 발자취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물론 이상의 진술들이 깔뱅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의 모든 모습을 정확히 나타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진술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갔던 한 인물에 대한 상은 적어 볼 수 있다.

자신의 뜻보단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보다는 성경이 나타내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장 깔뱅, 그는 언제나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어두운 중세시대에 개혁 2세대로써 바른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는 건강이 나빠서 언제나 허약한 모습이었으나, 가장 위대한 정신적 투사 중의 한 사람이요, 승리자였다. 그리고 그가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를 꺾고 길들이신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였다. 이처럼 그의 승리는 끊임없이 자기부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⁴⁷⁾

그리고 이러한 그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은 그대로 그의 신학사상에 반영되었고, 특별히 그가 전생애를 거쳐 집필해 나간 기독교 강요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강요는 어떠한 책인가? 이 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했으며, 그것을 구성하게 한 사상적인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다음은 이러한 기독교 강요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43) 1563년 5월부터 1564년 5월까지

44) Doumergue, *op. cit.*, p. 145.

45) Cadier, *op. cit.*, pp. 197~200. 참조.

46) Bèze, *op. cit.*, p. 182.

47) Jean Cadier, *op. cit.*, p. 3.



2. 기독교 강요의 전반적인 고찰

기독교 강요가 이 땅에 처음 나왔을 때, 세계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갈뱅은 즉시 복음주의 신앙의 챔피언들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개혁과 교회의 아리스토텔레스이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별명을 듣기도 하였다.⁴⁸⁾ 로마 교회는 당시 이 책의 위험성을 인정하였음인지 이단자의 코란이니, 탈무드니 하여 즉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빠리나 다른 지역에서는 책을 태워버리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기독교 강요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상당 수 있었다. 복음주의자들은 사도 시대 이후 가장 명석하고 가장 논리적이며 가장 확신에 넘치는 기독교 교리의 변호라고 예찬하였고,⁴⁹⁾ 이러한 칭찬은 비단 정통적인 신교도들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이었다.⁵⁰⁾

겨우 26세의 나이에 자기의 종교적인 확신과 정치적 확신을 계통 있게 조직하여 이것을 세계에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근본 문제를 대담하게 해결한 것은 일대 경이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23년 동안 끊임없이 개정되고 수정되는 속에서도 신앙과 사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1536년 제1판과 1559년 최종판 사이에 조금도 중대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그가 처음부터 성경에 철저하게 충실했으며,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자기 발명이나 자기 사상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분투와 연구와 경험을 통해 그의 지혜가 풍부해지고, 성경에 관한 지식이 깊어졌지만 처음의 확신과 사상은 변경할 필요가 그에게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하기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에 즉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심원한 의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갈뱅의 특징이었던 충실한 해석과 조직화를 위한 세심한 관심”을 보게 되는 것이다.⁵¹⁾

이 책이 유럽의 종교개혁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지대한 것이었다. 만일 기독교 강요가 없었더라면 루터가 죽은 후 신교가 어떠한 영향에 빠졌겠는가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 귀착점을 잃고 흩어졌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작인 기독교 강요는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는가? 무엇을 위하여 쓰여졌는가? 그리고 이 책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어떤 것들인가? 다음은 기독교 강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올바른 선이해를 위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48) 로마 카톨릭의 사가(史家)인 F.W. Kampschulte는 갈뱅을 Aristotle이라 불렀으며, 프랑스 사가(史家)인 Martine은 그를 가리켜 신교의 Tomas Aquinas라 불렀다.

49) F.W. Kampschulte, *Johann Calvin : Seine Kirch und sein Staat in genf* (1887), p.274. 신 복윤, 「칼빈의 신학사상」(서울 : 성광문화사, 1997), p. 54.

50) 튀빙겐 학파의 창설자 바우르(F.C. Baur)는 강요를 “그 독창성과 개념의 정통성, 조직적인 일관성, 그리고 명석한 방법론에 있어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참된 고전”이라고 극구 찬양하였다.(*Dogmengeschichte*, vol. III, 27.)

51) 신 복윤, *op. cit.*, p. 55.



(1) 역 사

니콜라 콕(Nicholas Cop)의 빠리 대학 총장 취임 연설문 사건으로 1534년 1월에 방랑의 길에 오른 깔뱅은 친구 루이 뒤 티예(Louis du Tillet)와 함께 네락, 노아용, 스트라스부르를 거쳐 마침내 1535년 1월 바젤에 도착했다.⁵²⁾ 그리고 이곳에서 깔뱅은 당시 프랑스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 붓을 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리스도교 사상 가장 유명한 교리서로 자리 잡은 기독교 강요의 집필을 시작한 것이다. 그의 나이 겨우 26세 되던 해였다.

기독교 강요의 초판은 라틴어로 1536년 4월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라는 이름으로 출판업자 토마스 플라터(Thomas Platter)와 발타자르 라시우스(Balthasar Ladius)에 의해 출판되었다. 깔뱅은 당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본명이 아닌 마르티아누스 루카니우스(Martianus Lucianus)란 가명을 썼다⁵³⁾. 기독교 강요 초판은 516쪽의 작은 분량의 책으로써, 큰 포켓에 간편하게 넣어 다닐 수 있는 소책자였다.⁵⁴⁾

기독교 강요의 시작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적어도 그 완성이 프랑소아 1세에게 드리는 헌사(獻辭)를 쓴 1535년 8월에는 이미 사실상 원고를 인쇄소에 넘길 준비가 다 되어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⁵⁵⁾ 이 책은 판을 거듭함에 따라 계속 증보되었으나, 그 초판에 있어서도 매우 포괄적이며 그 균형을 잃지 않는 훌륭한 그리스도교 교리서였다.

1536년 초판은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글”(Epistle to the King)로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깔뱅은 프랑스 왕 프랑소아 1세(Francis I)를 설득하고자 불붙는 듯한 웅변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낸다. 이 헌사는 지금까지도 전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서간문 중에 하나라 불리고 있다.⁵⁶⁾

깔뱅은 초판 전체 6장에서 첫 4장을 루터의 요리문답 순서와 동일하게 율법, 신앙, 주기도, 성례전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때까지 성례라 불려지고 있었던 견신례, 고해례, 안수례, 결혼례, 증유례 등은 성례가 아니라고 논박하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을 해설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논술한다. 이것은 1534년 그 유명한 벽보 사건을 공적으로 정죄한데 대한 답변이요, 또한 종교개혁에 대한 프랑스 왕의 잘못된 태도를 시정해보려는 항변이기도 했다.⁵⁷⁾

깔뱅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세네카의 『관용론』(*De Clementia*) 주석이 독자들에게서 인정을 못 받은 반면, 깔뱅의 기독교 강요 초판은 1년이 채 안되어 완전 매진되었고 수정판까지 요구 받게 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받았다.⁵⁸⁾

제네바에서의 얼마간의 생활을 접고, 1538년 스트라스부르로 옮긴 후 그 첫 달에 깔뱅은 개정판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출판업자 웬델린 리헬(Wendelin Rihel)을 통해 1539년 8월, 깔뱅은 다시 새로운 라틴어판 강요를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란⁵⁹⁾ 이름으로 출판했다. 초판과는 달리 개정판은 그 양이 6장에서 17장으로 늘어났으며, 제

52) 신 복윤, *op. cit.*, p.53.

53) 여기에서 깔뱅이 자신의 신분을 감춘 것은 박해로부터의 위험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자신의 학업에 주의가 분산되는 일을 막아 저술 활동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54) Wendel, *op. cit.*, p. 122.

55) 신 복윤, *op. cit.*, p. 56.

56) T.H.L. Parker, *Portrait of Calvin*(London : SCM Press), p. 35.

57) McNeil, *op. cit.*, p. 144.

58) Ibid.



본과 인쇄의 질뿐 아니라 그 문체도 실로 아름다웠다. 갈뱅의 문장이 최고도에 달한 때는 바로 이 스트라스부르 시대였다.⁶⁰⁾

특히 갈뱅은 1539년 판에서 제세레과와 까롤리(Caroli)와의 치열한 논쟁과 세르베투스 저서의 영향으로 삼위일체론의 해석을 상당히 확대하였고, 이들을 논박하기 위해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를 다루는 장을 삽입했다.⁶¹⁾ 이외에도 갈뱅은 비록 초판에서 다루긴 했지만 그 의미를 더욱 자세히 하기 위해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새로운 두 장으로 개설했고, 처음으로 예정과 섭리의 교리를 조직화하였다. 이렇게 되기에는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부처와의 대화와 아우구스티누스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 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갈뱅 자신의 목회경험은 물론, 1538년에 나온 부처의 『영혼의 진정한 치료』(*The True Cure of Souls*)의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⁶²⁾

이상과 같이 1539년 판은 비록 초판에 융합된 것이지만 그 형식과 내용이 다같이 현저하게 발전한 책이었다. 갈뱅은 자기 사상을 다룸에 있어서 생생하고 성숙한 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해설을 보다 논리적이고 계통적으로 체계화시키는데 성공했다.⁶³⁾ 또한 갈뱅은 어거스틴 이외에도 오리겐을 비롯한 많은 헬라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의 이름을⁶⁴⁾ 거론하며 그들의 사상을 다루고, 전에 없었던 플라톤의 사상까지도 언급하는 등 책의 개정판까지 지난 3년 간 그의 독서량이 많았음을 보여 준다.

1541년, 라틴어 개정판이 나온 2년 뒤 처음으로 갈뱅은 프랑스로 이를 번역하여 제네바의 장 지라드(Jean Girard) 출판사를 통해 최초의 기독교 강요(*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프랑스어 판을 출판했다. 이 프랑스어 판은 프랑스 산문사(散文史)에서 그 경계선을 그어 놓은 저작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로, 프랑스로 철학이나 윤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문제를 다룬 것이 이번 기독교 강요가 처음이었다는 점, 둘째로 그 명백함과 위엄과 간결함이 깊은 문체와 문학적 기법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⁶⁵⁾ 뤼니에(Pannier)는 갈뱅의 이처럼 뛰어난 문체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리듬이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빠르다. 그것은 가창을 사랑하는 사람의 작품이며 교양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 즉 매력적인 화술과 유창한 웅변을 소유한 사람의 문체이다.”⁶⁶⁾

대중어인 프랑스 말로 강요를 번역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라틴어판이 신학자, 철학자, 전세계의 지성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면 프랑스어 판은 프랑스, 제네바, 그리고 이웃 나라의 대중들을⁶⁷⁾ 위해 쓰여진 책이었다. 이 프랑스어 판이 끼친 영향은 루터의 독일어 성경과 그의 다른 저작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직접적인 것이었다.

59) 갈뱅은 이 제목에 ‘이제서야 드디어 제목에 정말 잘 어울리는’이라는 만족을 표했다.

60) Parker, *op. cit.*, pp. 37~38.

61) Wendel, *op. cit.*, p. 124.

62) McNeil, *op. cit.*, p. 145.

63) Wendel, *op. cit.*, p. 125.

64) 중세 신학자들에 관하여는 Peter Lombard와 그의 저서 「선고」(*Sentences*)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

65) McNeil, *op. cit.*, p. 145.

66) Ibid.

67) 여기에서 대중이란 노동자, 기공(技工), 양모에 빚질하는 사람, 지공, 심지어는 농민, 상인, 그리고 소자본가들로 사실상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프랑스어 판은 프랑스 내에 칼뱅교과를 만들기까지 했으며 더 나아가 동시대의 개혁가들과 교회들로부터 기초적인 교리문답서로 인정받게 되었다.⁶⁸⁾

이후에도 칼뱅은 기독교 강요의 개정과 보완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1543년, 세 번째로 새로운 라틴어판을 번역했으며, 같은 해 다시 라틴어판이 재판되기도 했다. 이 두 라틴어판은 전 번 책과 거의 다를 것이 없었고, 새로이 수도서약(修道誓約)과 인간의 전통에 관한 것들을 제외하곤 다만 17장에서 21장으로 늘어난 것뿐이었다.⁶⁹⁾

1550년 새로운 라틴어판이 나왔고, 곧 이어 1551년엔 프랑스어 번역판, 그리고 1553년과 1554년에는 라틴어판이 거듭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불티나게 강요가 팔려나갔다. 이와 같은 개정은 1550년에서 1557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칼뱅은 이 사이 성경과 그 권위, 성자(聖子)와 형상에 대한 예배 등의 새로운 항목과 그에 해당하는 인용문들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칼뱅은 새로운 개정판을 낼 때마다 새로운 인용문들을 제시했는데 이는 칼뱅이 끊임없이 고대의 저작들을 읽고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세월이 흘러 이제 노년에 이른 칼뱅은 극도로 병마에 시달리면서, 다가오는 최후에 대한 불안과 함께, 자신의 저서의 새롭고 최종적인 결정판을 출간할 것을 결심하고, 동생 앙뜨완느(Antoine)와 몇몇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서둘러 기독교 강요 최종판 작업에 착수했다. 칼뱅은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잘못 표현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구절들을 삭제하고 수정하면서 개정 작업에 몰두했다.⁷⁰⁾

중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마지막 강요의 마무리를 위해 건강을 생각지 않고 열심히 저작에 힘썼으며 이러한 노고 끝에 드디어 1559년 라틴어 최종판이 제네바의 출판업자 로베르 에티엔(Robert Etienne)을 통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칼뱅이 전 생애를 바쳐 이루어 놓은 정점이라 할 수 있다.⁷¹⁾

최종판은 칼뱅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완전히 개정되었으며 양에 있어서도 21장에서 80장으로 4배 가량이 증보되었다. 여기에서 칼뱅은 사도신경의 구조에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교회로 강요를 재구성했다.⁷²⁾ 그리고 그 교의학적 의미에 있어선 크게 두 부분, 즉, 하나님(삼위일체, 창조주, 섭리), 성경, 그리고 인간에 관한 교리를 1권에서 다루고, 나머지 2, 3, 4권에서 역사적 계시와 구원의 계획을 다루었다. 이것은 다시 두 부분으로 세분되어 첫 부분에서는 구원을 위한 준비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있어서의 그 완성을 말하고(2권), 둘째 부분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을 논술한다. 이 구원의 적용은, (1)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완성은 내세에서 보게 된다(3권). (2) 그리고 외적 수단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공작을 완성하시어, 그 목적을 달성하시게 된다(4권).⁷³⁾ 즉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구원론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칼뱅의 최종판은 단순한 사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루터와 웨스트팔과의 성체에 관한 논쟁, 오시안더(Osiander)와의 교리 논쟁, 그리고 영적인 사상가들을 비롯한 세르베투스, 렐리우스 쏘시니우스(Lelius Socinius) 등의 학자들과의 논쟁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었다.⁷⁴⁾

68) Wendel, *op. cit.*, p. 126.

69) 신 복윤, *op. cit.*, p. 60.

70) Wendel, *op. cit.*, p. 128.

71) Ibid.

72) McNeil, *op. cit.*, p. 147.

73) 신 복윤, *op. cit.*, p. 63.



비록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559년의 최종판은 개혁교회의 신학적 요약서(*summa*)로써 기념비적인 저서가 되었다. 이 최종판은 칼뱅 생존시에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사후에도 그 명성은 결코 손상되지 않았다. 그것은 기독교 강요의 정치적인 면으로부터 비롯된 칼뱅과 정통신학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명백한 토대가 되었는데, 이후 반대론자들도 그것을 결코 수정하지는 못했다.⁷⁵⁾

(2) 사상적 배경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진리의 이론적인 해석에 그치는 책이 아니다. 엄격히 말해서 기독교 강요는 형식상 행동의 지침서로 꾸며진 것은 아니었지만 쉽게 교회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기초가 되었으며 교회의 도덕 생활의 기반이 되었다. 기독교 강요의 문장의 적절한 표현력, 논증의 논리적 설득력, 진술의 정확성, 이런 것들은 모두 칼뱅 자신의 것들이었다. 기독교 강요 전반에 흐르고 있는 도덕적인 정열은 불붙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교리서로서의 이 책은 생생하고 독창적인 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층 더 신앙생활을 주의 깊게 해석해 주고 있으며, 그 명확성과 진지함에 있어서 신기하고 감동적인 책이다.⁷⁶⁾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들이 칼뱅에게 있다고 해서 칼뱅 이전의 사상가들이나 동시대 종교개혁가들에게서 칼뱅이 아무런 사상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칼뱅은 그 이전의 사상가들과 선배 개혁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들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조직화해나갔다. 이것 때문에 칼뱅은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조직적인 사상가라 불리워지기도 한다.⁷⁷⁾

그렇다면 과연 칼뱅은 어떠한 사상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기독교 강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칼뱅의 신학사상과 그의 기독교 강요의 사상적 배경이 된 것은 성경이었다. 칼뱅은 성경 전체를 면밀히 연구하였다. 특히 구약에 대하여는 다른 어느 개혁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사상적 기초를 두었으며, 이 움직이지 않는 반석 위에 자신을 확고히 세우고 신앙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유일하며 가장 안전한 안내자로 확신했다.⁷⁸⁾

그는 17세기 스콜라 신학자들처럼 기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하나의 증거 문서로 보지 않고 유기적인 전체로 보고 그것으로 엮어 자기 신학체계를 형성했다. 칼뱅은 성경을 무관심한 과학자처럼 연구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신학적 입장의 확신을 찾으려는 정열을 가진 학자였다.⁷⁹⁾ 또한 칼뱅은 성경으로부터 추출해낸 신학적 원리들을 가지고 다시 성경해석의 원리들로 삼는 ‘해석학적 순환’ (*hermeneutical circle*)을 우리에게 보여준다.⁸⁰⁾

74) Wendel, *op. cit.*, p. 129.

75) *Ibid.*, p. 131.

76) 신 복윤, *op. cit.*, pp. 70~71.

77) Williston Walker, *John Calvin: The Organiser of Reformed Protestantism* (New York : Schocken Books, 1969), p. 146.

78) Wendel, *op. cit.*, p. 133.

79) *Ibid.*

80) 이 형기, 「기독교 강요 요약」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p. 15.



둘째로 칼뱅은 교부들의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교부들 중 칼뱅이 특별히 좋아하고 따랐던 교부들은 크리소스톰(Chrysostom)과 아우구스티누스이었다. 크리소스톰의 경우 칼뱅은 고대 어느 교부보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했⁸¹⁾,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의 모든 사상을 그대로 수용할 정도로 그의 사상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했다. 특별히 자유의지와 성례관, 은혜와 예정을 다루는 장에서는 전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증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했다.⁸²⁾

하지만 칼뱅은 교부들을 진리의 심판자가 아닌 증인으로 생각했다. 즉 그들의 사상을 많은 점에서 수용했지만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없었다. 칼뱅에게 있어서 신앙의 규범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오직 성경이었기에 만일 교부들이 성경의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저 없이 칼뱅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한 예로 부처가 교부들의 저서를 무차별하게 인용하였을 때, 칼뱅은 부처가 교부들의 성자기도관(聖者祈禱觀)에 지나친 권위를 부여한다고 비난한 바 있었다. 즉 칼뱅은 단순히 교부들의 사상을 여기저기에서 체계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도에 의해 보물을 찾듯이 신중하게 선택하여 사용했던 것이다.⁸³⁾

셋째로 당시 인문주의자들과 개혁자들로부터 칼뱅은 많은 영향을 받았다. 칼뱅은 회심을 한 이후에도 인문주의의 흔적을 계속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성경해석이 발라(Valla)나 에라스무스(Erasmus)의 방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⁸⁴⁾ 에라스무스의 영향은 더욱 깊어서 칼뱅이 성경을 읽을 때 에라스무스의 방법과 표현을 자주 생각나게 하는 바 있다.⁸⁵⁾ 비록 칼뱅이 에라스무스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고안된 표현법과 공식적 문구 - 속세에 대한 경멸, 죽음의 갈망, 세속적인 의무, 믿음과 종말에 관한 내세론 등 - 들을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자주 사용한다.⁸⁶⁾

그러나 무엇보다도 칼뱅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루터였다.⁸⁷⁾ 이것은 먼저 루터에 대한 칼뱅의 평가에서 볼 수 있다. 칼뱅은 그의 『피기우스와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Treaties on Free Will against Pighius*, 1543)에서 다음과 같이 루터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이전과 같이 루터를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그의 노고와 사역에 의해서 복음의 순수성이 이 시대에 회복 된 것이다.”⁸⁸⁾

칼뱅의 저서에서 루터의 어떤 완전한 논증이나 문장 그대로 인용된 것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1536년 기독교 강요의 초판 구성이 루터의 소요리문답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이나, 계명이나 사도신경 첫 항에 관한 해석이 루터와 동일한 점, 그리고 거의 모든 기본적

81) *Opp.*, 9, 834. Wendel, *op. cit.*, p. 134. 재인용

82) *Inst.*, III. 22, 8, 10:24, 1. 칼뱅은 여기에서 어거스틴의 *Retractation* I. xxiii. 2-4와 로마서 주석 iv, ix, 그리고 *On the Grace of Christ and Original Sin* xiv, xv, xxxi에서 인용하였다.

83) Wendel, *op. cit.*, p. 133.

84) 신 복윤, *op. cit.*, p. 75.

85) F.J. Potgieter는 칼뱅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J. Bohatec은 칼뱅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인정하되 칼뱅신학의 근본적인 조건 때문에 제한되었다고 보았다.

86) Wendel, *op. cit.*, p. 140.

87) 그러나 D.R. polman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칼뱅에게 미친 루터의 영향을 부정하기도 한다.

88) *Corpus Reformatorum* 6. 250. 신 복윤, *op. cit.*, p. 76.



인 교리-칭의, 인간의 전적인 부패, 원죄, 구세주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전적으로 일치하는 점을 보았을 때, 우리는 루터가 칼뱅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⁸⁹⁾

그러나 칼뱅은 교부들에게도 그러했듯이 루터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사상을 전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다.⁹⁰⁾ 1536년 이후 칼뱅은 성찬관(聖餐觀) 때문에 루터와 손을 끊은 이후, 점차 그 차이점이 심해져 성경의 정경성 문제, 예정, 교회, 그리스도, 성례관 등에서 현저한 불일치점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루터의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과 칼뱅의 하나님 중심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⁹¹⁾

루터 다음으로 칼뱅에게 영향을 준 개혁가는 멜랑히톤이다. 칼뱅은 멜랑히톤의 교의학 교과서인 *Loci communes*(1535)에 나오는 멜랑히톤의 기독교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더욱이 칼뱅이 멜랑히톤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 서명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칼뱅이 멜랑히톤의 사상에 적극 찬성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⁹²⁾ 하지만 칼뱅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리, 바로 자유의지와 예정교리로 인해 멜랑히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⁹³⁾

마지막으로 칼뱅의 신학사상과 기독교 강요 형성에 영향을 준 인물은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마틴 부처였다. 1537년 칼뱅이 부처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이미 칼뱅은 부처와 서신을 통해 교제를 하고 있었고, 특별히 그의 1527년에 출판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주석을 읽고 자신의 사상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 부처의 저서들은 기독교 강요의 준비적인 연구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⁹⁴⁾

특히 칼뱅의 구원관과 예정교리는 부처의 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문제들이었다. 그리고 칼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부처가 이미 가르친 바 있는 선택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선택은 불신자와 구별된 신자들의 신뢰를 기초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처와 칼뱅은 다같이 선택을 하나님의 세계 통치라고 하는 추상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인간에게 두 구별된 범주, 곧 피택자와 유기자가 있다고 보고, 이 교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강화하는 교리라고 주장하였다.⁹⁵⁾

선택 교리를, 신앙 생활을 높이 유지하게 하는 격려와 신뢰의 기초로 이해하는 경건주의적 사상은 당시의 어느 다른 개혁자들보다 부처의 사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칼뱅은 이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교회의 중요 특징으로 삼은 것이다.

이외에도 신앙을 *persuasio*, 곧 확신이라고 본 점,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은혜 등에서 이 둘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특별히 교회의 조직과 직분들에 대해선 전적으로 부처의 의견을 칼뱅은 따르고 있다.⁹⁶⁾

89) Wendel, *op. cit.*, p. 142.

90) Wallker, *op. cit.*, p. 147.

91) Wendel, *op. cit.*, p. 144.

92) 칼뱅은 1557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 대하여 “나는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고백」을 부정하지 않으며, 기꺼이 그 저자가 해설한 이론을 찬성한다.” 고 말했다 (*Opp.*, 16, 430).

93) *Corpus Reformatrum* 16, 263, 430. 신 복윤, *op. cit.*, p. 77. 재인용

94) *Ibid.*, p. 78.

95) Wallker, *op. cit.*, p. 148.

96) Wendel, *op. cit.*, p. 153.



(3) 저작목적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출간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개정하였던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 칼뱅과 그의 기독교 강요가 말해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1) 개혁신앙의 변증서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칼뱅으로 하여금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게 한 요인은 프랑스 내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변호하기 위함이었다.

칼뱅이 바젤에 있을 때 이미 몇 달 전에 일어난 벽보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 계속된 박해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벽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1534년 10월 17일 밤, 미사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벽보는 빠리 시내 여러 곳과 심지어는 궁전 문에까지 붙여졌다. 이 벽보의 제목은 “유일하신 중보자시오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성찬을 직접 반대하여 만들어진 교황주의 미사의 그 무섭고 용납할 수 없는 남용에 대하여”⁹⁷⁾였으며, 작성자는 뉘샤텔(Neuchatel) 교회의 목사 앙뜨완느 마르꾸르(Antoine Marcourt)였다.

이 벽보의 내용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성찬미사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글로 그 문장은 격렬했고 많은 욕설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르꾸르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이 벽보 사건의 반응은 컸다.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소아 1세는 이 벽보 사건으로 분노가 극에 달해 그의 야수적인 반응을 두 가지로 나타냈다. 첫째는 행렬 성가와 기도를 명하여, 빠리 시내의 여러 십자로와 그 외 몇 곳에 첨부되고 살포되었던 그 수치스럽고 이단적인 벽보와 책자들을 시정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원하도록 했고, 둘째는 자신이 직접 박해를 가하여 이를 시정하기로 결심했다.⁹⁸⁾

이 같은 박해는 당시 이 사건과 연관이 없었던 많은 복음주의자들을 화형대로 내 몰았다. 최초의 순교자는 바르텔레미 밀롱(Barthélemy Milon)이었고, 처형당한 사람들 중에는 칼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던 빠리 상인 에티엔느 드 라포르주(Etienne de La Forge)도 끼어 있었다. 몇 달 동안 계속된 박해 속에서 무고한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옥에 투옥되어 고문당하고 화형당했다.⁹⁹⁾

당시 이러한 가혹한 처형에 대한 소식이 외국에까지 전해지자 독일의 거의 전지역에서는 대대적인 비난이 일어났다. 일이 이렇게 되자 당시 신성 로마제국의 칼 5세에게 대항하기 위해 독일 군주들과의 동맹을 원했던 프랑소아 1세는 혹여 이 사건으로 동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가득찬 소책자를 출판하였다.

이 팜플렛은 기욤 뒤 벨래(Guillaume du Bellay)라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이 답변에서 프랑소아 1세는 당시 자신이 박해를 가한 사람들은 선동가들로 이들은 복음주의자들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박해를 받는 극단론자로 이름난 재세례파들이라고 매도했다. 이렇게 프랑소아 1세는 밖으로는 거짓으로 종교개혁에 대해서 호의를 보이는 척 하면서 안으로는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박해를 계속 했던 것이다.¹⁰⁰⁾

97) 이 벽보문은 Crespin의 *Historie des Martyrs*(Toulouse, 1885), I, pp.298~302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복사문은 *Images du Passé protestant*(Paris, 1955), p.37에 실려 있다.

98) Jean Cadier, *The Man God Mastered*(Grand Rapids : Eerdmans, 1960), p. 60.

99) McNeil, *op. cit.*, p. 139)



당시 이러한 상황을 바젤에서 목도한 칼뱅은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칼뱅은 시편 주석 서문¹⁰¹⁾에서 그 당시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저 정치적 헐잡꾼들의 속임수로 꾸며진 이 거짓된 음모가, 그 거룩한 순교자들이 죽은 후, 아무 근거도 없는 비방과 중상을 뒤집어씌움으로, 무죄한 유혈을 은폐하는데 도울 뿐만 아니라, 후에 동정의 여지도 없이 저 가련한 성도들을 잔인하게 살육하려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를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침묵을 지키겠다고 하면, 불충성의 비난에 대해서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⁰²⁾

이러한 처절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칼뱅은 프랑스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변호의 글을 집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저작 의도는 1536년 초판 서문에 실린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글”¹⁰³⁾에서 잘 나타난다.

폐하시여! 내가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후에 폐하게 드릴 수 있는 책을 쓰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의도한 바는 다만 기초적인 원리들을 약간 기술하여 종교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경건의 특질이 무엇인가 함을 배우게 하려는데 있었나이다. 그리고 이 책은 주로 나의 동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하여 썼사온데, 그들 중에는 주리고 목마른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심히 많사오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지식을 소유한 자는 극히 적은 것을 알았나이다. 바로 이것이 나의 붓을 든 의도라는 것은 이 책 자체가 증명하는 대로, 그 내용이 단순한 방법과 아무 수식이 없는 문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 수 나이다. 그러나 폐하의 나라에서는 건전한 교리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따라서 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나의 지식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며, 나의 신앙고백을 폐하게 보여 드릴 수 있다면, 이것으로 나의 노력은 유용하게 바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나이다. 이 신앙고백을 통하여 폐하께서는 현재 불과 검은 나라를 소란케 하고 있는 그 광인들에게 광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 교리의 성질이 무엇임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하나이다.

즉, 칼뱅이 그의 시편 주석 서문에서 명백히 말한 대로, 1535년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박해가 재세레파와 선동가들에게만 가해졌다고 하여 박해의 정당성을 꾀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칼뱅은 이 책을 변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칼뱅은 복음주의자들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것임을 밝히려 하였다. 칼뱅은 이미 생명을 건 그 영웅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상실되고 박약해진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위한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이 책을 썼던 것이다.¹⁰⁴⁾

100) Cadier, *op. cit.*, p. 61.

101) 이 시편 주석 서문은 1557년에 출판되었다.

102) *Preface to Psalms*, p. xl i

103) 칼뱅의 이 헌사는 프랑스 문학 사상 세 불후의 헌사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하나는 De Thou의 프랑스사 서문이요, 둘째는 Casaubon의 Polybius라는 저서의 서문이요, 셋째가 칼뱅의 기독교 강요 서문인데 이것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나 유용성에 있어서 앞의 두 서문을 훨씬 능가한 것이다.

104)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Grand Rapids : Eerdmans, 1969), Vol. VIII. p. 330.



2) 개혁교회의 교리서

칼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국의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의 변호를 위해 강요를 서둘러 출판했다. 하지만 이것이 강요의 본질적인 저작 의도는 아니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글”에서도 보이듯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의 본래 저작 의도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가능한 한 단순하면서도 조직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교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시키려는 데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의도는 1539년 제2판 강요 서문에서 그 목적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칼뱅은 2판 서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하는 신학 후보생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¹⁰⁵⁾ 그는 이제 지식인들에게 개혁파의 교리를 간명하게 해석해 주는 데에서 성경을 교의학적으로 소개하려는 데 더욱 뜻을 두게 되었다. 즉, 칼뱅의 안중에는 일반 대중보다는 신학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벨랑히톤이 1521년 *Loci Communes*를 출판할 때와 마찬가지로, 칼뱅은 지금 일종의 교의학 개론을 저술하여 신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비함으로 신학도들의 지침서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¹⁰⁶⁾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뱅이 일반 대중을 그 사고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각 주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찾고자 하는 수많은 독자들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칼뱅의 프랑스어 판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독자들이 이 책을 보다 유익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간략하게 그 활용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즉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저 향하여야 하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최종 목적을 그들에게 밝혀주고자 하는 것이다. 확실히 성서가 더 이상 첨가할 것이 없는 완전한 교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속에 우리 주님이 무한한 보물을 계시하였지만, 그것을 잘 습득하지 못한 사람은 인도와 도움을 얻을 수 없으며, 만약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고 성서가 명한 목적을 지향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 찾게 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감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사람들의 의무는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도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의 손길을 주는 것이다. ... 이 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서를 참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며, 출발점이 되게 할 것이다.¹⁰⁷⁾

바로 기독교 강요는 신자들의 최종 목표인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바르게 안내해 주기 위한 책이자 그 길을 알려주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책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칼뱅은 이중 목적을 가지고 그의 기독교 강요를 저술해 나갔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강요는 그의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이 꾀박을 면하기 위한 변증이라는 의미에서 ‘고백’이며, 종교적 탐구자들을 위한 ‘지침서’였다.¹⁰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면서도 동시적인 목적은 동등하게 유용하였다. 그러나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아 후자가 전자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다.¹⁰⁹⁾ 칼뱅은 프

105) McNeil, *op. cit.*, p. 145.

106) Wendel, *op. cit.*, p. 157.

107) *Opp.*, 3, p. xxxiii. Wendel, *op. cit.*, p.158.

108) McNeil, *op. cit.*, p. 143.

109) Wendel, *op. cit.*, p. 156.



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해(for) 말함과 동시에 또한 그들을 향해서도(to) 말했다. 하지만 칼뱅의 기독교 강요 개정판들에서 칼뱅은 변호보다는 교훈을 더 의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것은 그가 여러 번에 걸쳐 자기의 논문들을 수정해서 개정 증보한 이유이기도 하다. 4반세기에 걸쳐 마치 반복 수정으로 기계를 완성시키는 발명가처럼, 칼뱅은 마침내 그것이 자기 마음에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손질했던 것이다.¹¹⁰⁾

이상에서와 같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수정과 재구성, 또한 증보하여 만든 가장 가치 있는 일대 저작이다. 고대의 수많은 교부들과 선배 개혁자들의 사상이 이 강요 안에서 재평가되고 확인되고 있으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교의학적 해석들이 포함되어 있다. 칼뱅은 자신의 생애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들을 강요 안에서 조직적으로 풀어나갔으며, 강요를 기준으로 다시 그의 모든 저작 활동에 임했다.¹¹¹⁾ 말 그대로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칼뱅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책이자, 그의 모든 사상을 가장 충실하게 요약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특히 그의 말년에 완성된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은 기독교 교리의 완전한 해설서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¹¹²⁾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다음에서는 이 기독교 강요 1559판에 나타난 칼뱅의 신학사상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보 고자 한다.

3. 기독교 강요 내용의 구원론적인 성격

기독교 강요의 구원론적 성격이라 함은 기독교 강요 속에 구원론적인 성격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으며, 그 중심사상이 구원론임을 의미한다. 즉, 칼뱅은 구원론을 중심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구성했으며 강요 속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이 ‘구원’이라는 주제에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칼뱅의 관심은 특별히 기독교 강요의 각 권의 제목에서 잘 나타난다. 1권 -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2권 -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3권 -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4권 -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수단. 이처럼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구원에 관한 생각을 논하고 있다. 그럼 보다 자세히 각 권에 나타난 칼뱅의 구원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제 1 권 :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신앙과 연관된 수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1권 역시 몇 가지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 주제별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10) McNeil, *op. cit.*, p. 143.

111) 이 형기, *op. cit.*, p. 15.

112) Wendel, *op. cit.*, p. 122.



1) 하나님에 대한 인식, 성경과 성령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시작한다.

참되고 확실한 지혜로 일컬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 지식의 전반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지식과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다.¹¹³⁾

칼뱅은 자신의 신학교리서의 시작을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것은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 본래의 올바른 위치로 돌아가야 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첫째 되는 가르침으로 바꿀 수 있다. 즉,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칼뱅은 그의 구원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해 칼뱅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알 수 없으며, 신의 존재(*Quis est Deus*)를 묻는 것은 헛된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실체는 불가사의한 것이므로 그 주권은 우리의 감각을 초월한 곳에 숨겨져 있다.¹¹⁴⁾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칼뱅은 초대 교부들 사이에서 널리 옹호된 신학적 견해를 따르며, 뵈와티에의 힐라리(*Hilary of Poitiers*)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용과 함께 하나님을 깨닫는 길을 제시한다.

하나님을 깨닫는 특권을 하나님께 위임하라.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신관(神觀)을 스스로 조작해 내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다.¹¹⁵⁾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칼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 목적을 중요하게 말한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하심만을 깨닫고자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 것인가, 즉 어떻게 유익한 것인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엄격히 말해서, 신앙이나 경건함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깨달아진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관심에서 벗어나 태만 속에서 즐거워하는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쾌락주의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경외와 숭배의 마음을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하

113) *Inst.*, I, 1, 1.

114) *Inst.*, I, 5, 1.

115) *Inst.*, I, 13, 21.



나눔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¹¹⁶⁾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유익, 즉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경건한 생활,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깨달음이어야 함을 깔뱅은 주장한다. 이처럼 깔뱅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철학으로부터 추론된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인간들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며, 루터가 역설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게 하는 그러한 지식인 것이다.¹¹⁷⁾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여기에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이다. 하지만 성서라는 책 하나만으로 충분하진 않다. 깔뱅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조건은 믿음이라고 말한다. 깔뱅 자신이 ‘하나님의 신비는 오직 그것을 받은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다.’¹¹⁸⁾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그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만 바른 이해를 허락한다고 깔뱅은 보았다.

그럼 믿음을 가진 이들을 성경 속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과연 성경이 가진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어찌 보면 이 질문은 기독교 강요 전체에 걸쳐 깔뱅 자신이 답하고 있는 물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깔뱅은 ‘하나님께 대한 양모와 사랑으로 자원함 가운데 그 유익함을 깨닫는’¹¹⁹⁾ ‘참된 신앙’, 즉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깔뱅은 그의 성경 개역판 서문에서 더욱 자세히 보여준다.

성경은 우리의 어리석은 호기심이나 공명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유익한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위안을 주며, 훈계하여서 모든 의로운 일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그러한 목적에 맞게 이용하자. 만일 우리에게, 우리가 성서로부터 얻어야 하는 이 모든 감화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면, 그 답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성장시키고, 경외의 길로 나아감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시며, 복음의 본질이신 한, 우리에게는 주를 깨닫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없다.¹²⁰⁾

즉, 우리는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접해야만 한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나 혹은 단순한 상상에 불과하다.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오직 한 분이신 중재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없을 것

116) *Inst.*, I, 2, 1.

117) *Wendel, op. cit.*, p. 164.

118) *Inst.*, I, 7, 5.

119) *Inst.*, I, 2, 1.

120) *Opp.*, 9, 825. *Wendel, op. cit.*, p. 166.



이며,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서 연구의 목적이 그리스도께로 집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서의 깨달음, 또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바로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들을 구별짓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칼뱅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다른 한 존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성령이라 주장한다. 칼뱅에 의하면 만약 성서가 우리의 고백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쓰여진 책이라면 이 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스스로 증거하시기에 진실로 족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말씀이 성령의 증거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할 것이다. ... 그러므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은 그 예언자들이 하늘로부터 명해진 계율을 신실하게 밝힌다는 사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들어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¹²¹⁾

즉, 성령은 성서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우리가 그러한 영감의 동일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 역시 성령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칼뱅은 성령의 증거를 성서의 권능이 깨달아지는 가장 최상의 표준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로마교회가 주장한 교회의 권능과 전통에 입각한 외면적인 권능을 부인했다.¹²²⁾ 또한 성령이 성서의 바깥에서도 계시를 계속하고 있다는 구실로 성서를 2차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거나,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으로 간주하는 유신론자들 역시 강력히 부인하였다.¹²³⁾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는 것도 부인하였다. 성령은 오로지 성서에 담긴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의 증거는 성서에 아무 것도 덧붙이거나 첨가하지 못한다. 즉 성서 속에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계시할 수 없는 데, 말하자면 그러한 증거는 성서의 원문에 선포된 새로운 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은 여기서 성도들에게 은사의 확신을 주거나 혹은 속죄의 그리스도와 연합해 해 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¹²⁴⁾ 이처럼 칼뱅은 성서의 깨달음에 있어서 성령의 증거를 중요시하면서도, 그 이상의 확대된 해석은 자제하고 있다.

2)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계시하시는 것이 오직 성서를 통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인간에게 계시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바를 깨달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서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것을 찾아야 하는가? 칼뱅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각기 독특한 삼위로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나타내심으로 스스로를 계시한다’¹²⁵⁾고 결론지었다.

121) *Inst.*, I, 7, 4.

122) *Inst.*, I, 7, 1.

123) *Inst.*, I, 9, 1.

124) Wendel, *op. cit.*, p. 170.

125) *Inst.*, I, 13, 2.



칼뱅은 그의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루터의 견해를 따르며 특별히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와 그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진리를 속임수로 역전시키려는 중상자들에 대항하여, 그것을 마땅히 옹호하고 지지하여야 할 때, 이러한 신성한 용어가 당연히 필요하다.¹²⁶⁾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칼뱅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논쟁과 세르베투스와의 논쟁들을 거치면서 자신의 삼위일체론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갔다. 그럼 칼뱅이 말한 삼위일체의 개념은 무엇인가?

칼뱅은 삼위 하나님의 개별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 본질의 통일성을 말한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용어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미할 뿐, 서로 다른 명칭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구별이지 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 성자가 성부와 다른 속성을 갖지 않는 한,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이 될 수 없으며, 또, 성자가 성부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성부와 더불어 그의 영광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성부의 성령의 구별은 성령이 성부로부터 유래된다고 할 때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서의 여러 구절들 속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을 때처럼, 다른 이름으로 일컬어질 때 성자와 구별되는 것이다.¹²⁷⁾

이러한 해설의 전반에 걸쳐서, 칼뱅은 신성의 본질이 통일성이고 동시에 삼위간의 개별성을 설명하거나 또는 최소한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전통적으로 내세워진 많은 논쟁들을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 삼위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모든 행위의 처음이며, 모든 사물의 원천과 근본이 성부의 속성이며, 모든 사물이 배치되는 질서와 지혜와 지각이 성자의 속성이며, 다음으로 모든 행위의 효력과 가치를 발휘하는 힘이 성령의 속성이다.¹²⁸⁾

비록 그 독창성은 결여되었지만,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칼뱅신학의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이것은 칼뱅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에 역점을 두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이와 같이 칼뱅은 구원의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음의 궁극적 대상이라고 보았다.

3) 창 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의해 우주와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칼뱅은 단언한다. 이러한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 즉 어떠한 외부적인 수단의 개입이 없이 오직 말씀을 통해 무로부터 이룬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계시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가 단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칼뱅은 여기에 인간이라는 목적을 창조에 결부시킨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만물을 정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또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

126) *Inst.*, I, 13, 1.

127) *Inst.*, I, 13, 17.

128) *Inst.*, I, 13, 18.



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목상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자극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쉽게 완성하실 수 있으셨지만, 6 일 동안 창조의 날을 나누셨던 것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견하셨듯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유익하고 이로울 모든 것을 먼저 예비하셨던 자애로운 하나님의 보살핌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다.¹²⁹⁾

이러한 깔뱅의 주장은 다분히 교육적 동기를 내포하고 있다. 즉, 창조의 인간 지향성을 강조할수록, 아담의 원죄는 보다 가중되고,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되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은 더욱 커지고 충만한 것이 된다. 하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이 그 당면한 참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의 모든 현시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집약된다.¹³⁰⁾ 그리고 이러한 점은 그의 『예정론에 관한 논문』에서 더욱 자세히 나타난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피조물이 없어도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 하시면서 스스로의 영광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추론해 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논쟁에 불과하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실지라도, 인간을 창조하시는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속에서 영광되게 하시려는 것이다.¹³¹⁾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깔뱅은 이러한 창조가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하고 볼 수 있는 세계나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천사에 의해 형성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구절에서 강조한다.¹³²⁾

4) 하나님의 섭리

창조에 관한 충분한 논의 후 깔뱅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자세히 논한다. 깔뱅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지만 창조 이후에도 그것의 절대적인 주인으로서 창조물에 관심을 베푸시고, 철저히 중재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단 한 번의 역사로 모든 창조를 완성시키신 덧없고 일시적인 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충분한 일이다. 우리는 모든 이단과 위선을 배척해야 하며, 주로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미덕이 태초에 우주의 영구한 상태처럼 현세에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고찰해야 한다.¹³³⁾

이처럼 깔뱅은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와 연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129) *Inst.*, I, 14, 22.

130) *Wendel*, *op. cit.*, p. 186.

131) *Opp.*, 8, 293. *Wendel*, *op. cit.*, p. 186.

132) *Inst.*, I, 14, 3 ff. 주석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133) *Inst.*, I, 16, 1.



인간의 마음은 창조의 하나님의 힘을 한 때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순간에서 멈추고 만다. ... 그러나, 믿음은 진실로 그 점에서 더 나아가고 진전되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즉 영원한 통치자와 인도자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의 작용을 우주적인 운행으로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작은 새 까지도 보살피시고, 지원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¹³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논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안일하게 앉아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방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키를 잡은 선장처럼, 모든 사태에 대처하시기 위해 조종하시고 지도하고 계신다.¹³⁵⁾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갈뱅은 무엇보다 신자들의 믿음이 필수적이라 말하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며, 그 섭리가 지배하는 범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한다.¹³⁶⁾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이 창조되고, 창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성하시고자 역사를 운행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선택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그 뜻을 위해 선용하시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패와 타락에 관여되거나, 악의 창조주는 결코 아니다. 갈뱅은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따라 악의 발생은 전적으로 악의 행위자에게 있으며, 악마와 악인들이 악을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그것을 뿌리내리셨거나 강요하였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스스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악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³⁷⁾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 은밀한 뜻 안에서 선언한 것을 완성시키실 때, 아무리 하나님께 복종하였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계율을 사악한 탐욕으로 깨뜨리고 거부하였으므로 변명할 여지가 없다.¹³⁸⁾

즉, 갈뱅은 악인들이 스스로 악을 범하게 만든 그들 자신의 사악한 목적으로 인하여, 정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의로운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진리가 그들의 사악한 의지를 조금도 감소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 예로 갈뱅은 유다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한다.

유다의 배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음으로 인도하려고 하였고 또 실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은 유다가 악행의 사자이며, 도구인 한, 그에게 우리의 구원과 해방에 대한 상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당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2) 제 2 권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주 하나님

134) Ibid.

135) *Inst.*, I, 16, 4.

136) *Inst.*, I, 16, 2.

137) *Inst.*, I, 14, 16.

138) *Inst.*, I, 18, 4.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논한 칼뱅은 이제 2권에서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을 논한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 전 목적을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인류 전체는 아담 안에서 멸망했다. 따라서 우리가 논한, 시초에 있었던 훌륭한 고귀성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큰 수치를 주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을 자기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구속자로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한 조물주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식이 무용지물인 것이다. 자연적인 순서는 우주가 일종의 학교가 되어 그 안에서 우리의 경건을 배우고, 거기서부터 다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복락으로 전진하기로 되어있다.¹³⁹⁾

이처럼 칼뱅은 그의 두 번째 책에서 이제 구원의 주로 오신 하나님을 보다 자세히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그럼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인간의 원죄

인간은 오직 성서를 통해 깨달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이 성경을 접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은 손상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매우 사악하여서 죄밖에 범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창조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특권을 상실하였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기대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칼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너무 심각하게 타락되었으므로, 남은 것이라곤 오직 무섭고 추악한 죄의 모습뿐이다.’¹⁴⁰⁾

여기서, 칼뱅은 원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아담의 죄에서 시작된 원죄, 칼뱅은 이 원죄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한 이기적인 ‘자애’ 보다는 자만으로 형성된 ‘불신’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죄로 인해 인간에게선 어떠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나 이성을 기대할 수 없고, 계속해서 악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잠재해 있는 그러한 사악함은 결코 태만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다. 즉, 우리가 방금 논했던 욕신의 활동들이 그것이다. 마치, 물을 뿜어내는 샘처럼, 혹은 끊임없이 불꽃과 화염을 뿜어내는 불타는 용광로처럼, 그러므로 원죄를 인간의 마음 속에 마땅히 지녀야 했던 근본적인 의(義)의 결핍으로 결론지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이러한 결론으로 모든 실체를 이해하고자 하였지만, 그것의 참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인간의 본성이 결코 공백이 있거나, 결핍된 상태가 아니며, 모든 악이 가득하게 들어차서, 다만 활동하지 않을 뿐이다.¹⁴¹⁾

이 죄로 인해 이성과 의지 역시 더럽혀졌다. 특별히 이 의지의 타락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상실케 했다. 본래의 순결한 상황 하에서는, 아담의 의지

139) *Inst.*, II, 6, 1.

140) *Inst.*, I, 15, 4.

141) *Inst.*, II, 1, 8.



는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 혹은 악 어떠한 방향으로도 스스로 지향할 수 있었지만, 타락 이후 이제 그 능력은 상실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는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다.’¹⁴²⁾고 칼뱅은 말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원죄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게 그 죄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점에 대해 칼뱅은 경험이 이러한 원죄가 진실로 우리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준다고 답변한다. 우리가 죄를 범할 경우,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완악한 의지의 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하는데 유리한 외부적인 강제력의 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저열한 필연성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다.¹⁴³⁾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즉,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 우리를 모든 외부적인 강제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악한 의지를 교정하고 의로 인도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선한 본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즉 그 지배를 이길 수 있는 의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¹⁴⁴⁾

2) 율 법

칼뱅은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재확립시키시고자 했다고 보았다. 하기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의롭고 거룩한 삶의 원칙을 제시하는 열 가지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선포하신 신앙의 형식’¹⁴⁵⁾이라고 칼뱅은 말한다. 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스스로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짐승의 역겨운 내장이나 기름덩어리를 바친다거나, 영혼의 얼룩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기 위해 몇 방울의 피 속에서 구원을 찾는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이름 아래 행해진 모든 경배 의식이 그것과 일치되는 진리의 전조나 암시를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써 상징의 의미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어린 아이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¹⁴⁶⁾

그럼 그 안에 암시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칼뱅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율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된 입법 제정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이기도 하다.

율법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간직해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찾아야 하는 구원의 소망을 양성시키기 위해 주어졌다.¹⁴⁷⁾

하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율법은 무의미하고 무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칼뱅

142) *Inst.*, II, 2, 6.

143) *Inst.*, II, 3, 5.

144) *Inst.*, II, 3, 6.

145) *Inst.*, II, 7, 1.

146) *Ibid.*

147) *Ibid.*



은 말한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칼뱅은 이 질문의 답으로 율법의 기능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교육적인 기능으로 율법은 ‘죄의 거울’로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 속에서 야기된 부정함을 일깨워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죄의 거울로서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¹⁴⁸⁾

둘째는 정치적인 기능으로 오로지 두려움 때문에 악행을 그만둘 뿐인 악인을 통제하는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의 양심은 가책을 받지 않으며’ 오직 강제에 의해서 복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거나 선한’ 인간이 아닌 것이다.¹⁴⁹⁾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능은 성도들로부터 기대되는 불멸의 기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를 강조했던 칼뱅은 ‘이 기능이 율법의 주된 기능으로서 이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것은 율법의 본래 목적이기도 하다.’¹⁵⁰⁾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칼뱅은 루터나 멜랑히톤보다 더 자세히 율법의 역할을 설명했으며, 더 나아가 이 율법과 복음을 연관하여 이 둘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그 뜻을 나타내신 율법을 통해 그것을 묵상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3)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정체는 ‘죄인’ (罪人)이었다. 결국 죄가 인간 소외의 원인이었으며, 율법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소외관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칼뱅은 이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2권의 마지막 부분을 기독교론으로 채우고 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외는 엄청난 것이었다. 칼뱅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¹⁵¹⁾ 그리고 이런 소외관계를 화해로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순 없다. 오직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인간이어야 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이 일어난다.¹⁵²⁾

칼뱅은 이와 같이 절대 역설적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업을 펼치셨다고 말하면서, 이 역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이 중보자를 묘사함에 있어서 그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있는 한 중보자로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딤후2:5)라고 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혹은 적어도 ‘하나님’ 이라는 말을 생략했듯이 ‘인간’

148) *Inst.*, II, 7, 7.

149) *Inst.*, II, 7, 10.

150) *Inst.*, II, 7, 12.

151) 자연인,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지는 율법 말씀에 조명된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

152) *Inst.*, II, 12, 1.



이란 말을 생략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적절한 계제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처하여 가장 적절한 구제책을 사용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성정(性情)이 같은 분으로 정하셨다. 그래서 성령은 그를 ‘인간’ 이라고 부르셨으며, 바로 이 ‘인간’ 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접촉하시는 육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¹⁵³⁾

그리고 이와 같은 역설적 위격을 지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역을 임무로 떠맡았다고 칼뱅은 말한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양성을 이해한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속죄의 능력을 부여받았고(요1:29),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성부처럼 영화롭게 되시기 위하여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임명되었다(요5:21~23). 끝으로 그는 ‘세상의 빛’ (요9:5), ‘선한 목자’, ‘유일한 문’ (요10:11), ‘참 포도나무’ (요15:1)가 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는 이미 위에서 말한 특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기 때문이다.¹⁵⁴⁾

그럼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칼뱅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말하고¹⁵⁵⁾,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즉 불순종으로 상실된 인간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획득하셨다.’¹⁵⁶⁾고 칼뱅은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논한 칼뱅은 이제 그의 사역을 보다 자세히 다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3중적인 직책을 다룬다. 그는 이 3중직을 예언자 직책, 왕의 직책, 그리고 제사장의 직책이라고 부르면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논했다.

먼저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들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았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초림에서부터 구원 메시지의 계시였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계시들의 충만함과 결정이 일어났다.¹⁵⁷⁾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부분에서 왕의 직책을 가지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시오, 각 개개 신자들의 왕이시다.¹⁵⁸⁾ 즉, 교회 공동체와 각 성도들은 마귀와 세상과 온갖 죄악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영역 내에 있다는 신앙이다. 비록 비참, 굶주림, 냉혹, 경멸, 비난 등 온갖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인들은 살아가지만 이들은 왕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에 끝내 승리한다.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 왕되신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영혼 구원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영적인 원수들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용기로 무장시키신다.¹⁵⁹⁾

153) Ibid.

154) *Inst.*, II, 15, 3.

155) *Inst.*, II, 16, 4.

156) *Inst.*, II, 17, 3.

157) *Inst.*, II, 16, 1.

158) *Inst.*, II, 15, 3.



끝으로 깔뱅은 화해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직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책을 말한다. 깔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흠과 티가 없으신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에 의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다.¹⁶⁰⁾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외관계에 중보자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깔뱅은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화해사업, 또는 구속사업을 보다 자세히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다. 따라서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받아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은 커녕, 사탄의 노예와 죄의 멍에 아래에서 무시무시한 파멸 속으로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차체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변호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하셨다. 즉, 하나님과 의로운 심판 하에서 모든 죄인이 위협받고 있는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수하시어, 하나님과 인간을 소외시키는 모든 죄악을 그의 피로써 씻어버리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화목제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잠잠케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와 화해는 바로 이 사건에 근거한다.¹⁶¹⁾

그리고 이 화해사건이 극한적으로 노출된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깔뱅은 말한다. 하지만 깔뱅의 기독교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깔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중요하게 다룬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며, 또 그 승리를 통해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한 승리를 얻기 때문이다.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만족되었으며, 그의 저주는 제거되었고,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부활을 통해서 중생하고 영생하는 소망을 가진다고 말하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벧전1:3).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갖는 신앙에 대한 신앙 역시 그의 부활에만 달려있는 것이다.¹⁶²⁾

그러나 깔뱅은 이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이 속죄의 사업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화해로 이끌기 위한 ‘순종의 전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¹⁶³⁾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신경을 들어 기독교론을 설명하면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마지막 심판날까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며,¹⁶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하면서 그의 기독교론을 마무리 한다.¹⁶⁵⁾

159) *Inst.*, II, 15, 4.
 160) *Inst.*, II, 15, 6.
 161) *Inst.*, II, 16, 2.
 162) *Inst.*, II, 16, 13.
 163) *Inst.*, II, 16, 5.
 164) *Inst.*, II, 16, 16.
 165) *Inst.*, II, 16, 18.



(3) 제 3 권 : 화해의 실현 - 성령의 숨은 역사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를 아는 지식을, 2권에서 구속주 그리스도와 그의 화해의 실현을 다룬 칼뱅은 이제 3권에서 그 화해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히 논한다.¹⁶⁶⁾ 그리고 이러한 점은 먼저 그 제목에 자세히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용하는 방법 : 이로부터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칼뱅은 3부분의 단락으로 나누어 그의 구원론인 기독교 강요 3권을 구성했다. 즉, 첫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둘째로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유익, 셋째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뒤따르나가 그것이다.

1)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칼뱅은 3권 첫 서두를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의 문제를 논해야겠다.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유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의 문제이다. 그 모든 좋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곤궁한 우리 인간을 부요케 하시기 위한 것이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시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고 무가치하게 남아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 것이 되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머리’ (엡4:15)라고 불리셨고, 또한 ‘많은 형제들 중에 만아들’ (롬9:29)이라 불리셨다. 또한 우리편에서는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이 되었다’ (롬11:17)고도 하였고, 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갈3:27)고도 하였다. 말하자면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성장하여 그와 함께 한 몸이 되기까지는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주신 바 된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서 성령의 숨은 역사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숨은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된다.¹⁶⁷⁾

칼뱅은 이 짧은 글 속에서 그리스도교 전 체계의 핵심 부분을 다 망라하여 요약하고 있다. 먼저 여기에서도 칼뱅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이해한다. 우리가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으나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구원과 은혜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가지고, 우리가 그의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믿음은 시체와 같은 우리를 성령께서 영적으로 살리심으로써 이루어진다.

2)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누리는 유익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무엇인가? 칼뱅은 항상 ‘모든 유익’, 또는 ‘그의 유익’, 즉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모든 유익을 총괄하여 말한다. 그러므로

166) 이러한 점에서 칼뱅의 기독교 강요 3권은 그의 구원론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67) *Inst.*, III, 1, 1.



칼뱅은 그 어디에서도 이 유익의 내용을 정의하지 않는다. 다만 4권 첫머리에서 3권의 내용을 총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용을 ‘구원과 영원한 복락’ 이라고 요약하여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칼뱅에게서 구원이란 3권 제목의 셋째 부분, 즉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받는 유익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구원과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복락을 다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사실은 3장 첫머리에 잘 설명되어 있다.

위에서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의 ‘유익’ 을 즐거워하게 되는 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 에 대해서 설명하기까지는 그것이 애매한 채 남게 될 것이다.¹⁶⁸⁾

3)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결과

칼뱅은 3장 서두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음을 회개와 죄사함으로 요약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눅24:47, 행5:31). 그러므로 신앙을 논하면서 이 두 가지 논제를 빠뜨린다면 아무 열매가 없고 거세당한 무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회개와 죄사함, 즉 새로운 삶과 거저 얻는 화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얻는다.¹⁶⁹⁾

즉 칼뱅은 그 은혜의 결과를 회개와 죄사함으로 보았다. 이처럼 기독교 강요 3권은 구원의 ‘방법’ 과 ‘내용’ 과 ‘그 유익’ 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의 독생자에게 다 부여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으로 역사하시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사함’ 과 ‘회개함’ 을 얻어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고, 한편으로는 중생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러한 구원을 말하면서 칼뱅이 중요하게 다룬 주제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4)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 Reformed Studies

앞서 살폈듯이 칼뱅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연합을 가능케 하시는 분을 성령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은 이신칭의, 회개, 성화, 기도, 예정 그리고 4권에서 다룬 교회와 성례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를 화해의 복음에 연결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고 칼뱅은 주장한다.¹⁷⁰⁾

하지만 칼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령이 또한 성부와 성자를 연합시키는 분이라고도 말한

168) *Inst.*, III, 3, 1.

169) *Ibid.*

170) *Ibid.*



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의 영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다.¹⁷¹⁾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연합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이러한 연합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이신칭의, 회개, 성화 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신칭의, 회개, 성화, 기도 등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일으킨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5) 이신칭의

그렇다면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실 때, 인간의 수용양상은 어떠한가? 율법말씀을 경험한 지성과 의지가 복음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 신앙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하며, 무엇보다 저 인간론적 주 요소인 지성과 의지가 신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갈뱅은 ‘신앙이란 성령의 주요한 일’¹⁷²⁾이라 말하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을 조명시키시고, 우리의 의지를 선택과 결단, 확고부동한 신뢰에 이르게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은 분명히 보통 인간의 이해력을 능가한다. 그리고 지성이 성령에 의하여 조명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도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확고부동하게 되어야 한다. ... 그래서 신앙이란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선물이다. 즉, 지성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맞보고, 이와 같은 진리이해 위에 마음이 확고히 서야 한다.¹⁷³⁾

즉, 신앙이란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을 조명시키심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 복음지식이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과 결단 그리고 확고부동한 신뢰인 것이다.

이러한 역할로 성령은 우리 안에 신앙을 일으키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이 양자됨이 곧 중생이요, 새 피조물인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은혜로 의인하신다. 이 의인된 자가 중생한 자요, 새 피조물이요, 구원을 얻은 자이다. 그리고 이 은혜와 신앙으로 기독교적 자유가 확보된다고 갈뱅은 말한다.¹⁷⁴⁾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갈뱅은 이 의인, 양자, 중생, 새 피조물, 구원 혹은 자유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회개를 일으키며, 적극적으로는 성화를 불러일으키고, 이 회개와 성화는 믿는 자의 생애를 통하여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갈뱅의 이신칭의 교리는 루터 신학의 중심사상으로서 갈뱅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갈뱅이 루터와 틀린 것은 루터에 비해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무게를 더 두었다는 점이다.¹⁷⁵⁾

6) 칭의와 회개

171) *Inst.*, III, 1, 2.

172) *Inst.*, III, 1, 4.

173) *Inst.*, III, 2, 33.

174) *Inst.*, III, 1, 4.

175) 이 형기, *op. cit.*, p. 426.



의인은 회개를 통한 성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성취한 그 어떤 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오직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포착하고 이 의로 옷 입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처럼 나타나는 것이다.¹⁷⁶⁾

이것을 하나님 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그의 총애와 은혜로서 전적으로 용납하시고,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시는 것이다. 갈벱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5~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양자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미쁘게 여기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의인을 분명히 용납이라는 말로 표현한다.¹⁷⁷⁾

이러한 점에서 갈벱은 오시안더(Osiander)에 반대하여 의인은 결코 실제적으로 의로워짐에 조건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 오히려 갈벱은 의인이란 법적인 용어라고 하면서 고발의 반대 개념이라고 말한다.¹⁷⁸⁾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악의 전적인 사함을 받은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축복이 인간 스스로가 본래적으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가시켜준 의 까닭에 주어진다고 판결하신다.¹⁷⁹⁾

즉, 이 의인하시는 의는 인간 밖에서 왔다. 의인 이전의 모든 자연인의 능력과 업적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여도 전혀 인간을 의인하는 의는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벱은 자연인은 악한 나무로서 악한 열매를 맺을 뿐이라고 말한다.¹⁸⁰⁾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양심의 평화를 일으킨다.¹⁸¹⁾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 바 됨을 확신한다.¹⁸²⁾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의 만남에서 오는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복음신앙은 의인, 양심의 평화와 위로, 그리고 마음의 청결함을 가져온다. 마음의 청결이란 마음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는 의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기에 갈벱은 다음과 같이 의인을 정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죄인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케 되는 것인데, 동시에 이 죄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전적인 속죄를 얻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 이 의가 마치 자기의 것인 양,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¹⁸³⁾

의인된 인격이 일에 선행한다. 평화와 위로 받은 양심, 깨끗해진 마음을 소유한 인격이라야

176) *Inst.*, III, 3, 2.

177) *Inst.*, III, 11, 4.

178) *Inst.*, III, 11, 11.

179) *Ibid.*

180) *Inst.*, III, 14, 4.

181) *Inst.*, III, 13, 1.

182) *Inst.*, III, 13, 5.

183) *Inst.*, III, 17, 8.



성화의 삶에 나아가기 시작한다. 따라서 깔뱅은 회개와 성화의 과정은 의인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사죄를 베푸시고 회개를 요구하신다. 그의 자비와 사랑이 회개의 원인임을 암시한다. 구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의를 행하라 하신다.¹⁸⁴⁾

즉, 복음신앙에 의한 의인이 결정적인 회개를 가져온다. 하기에 깔뱅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3:2)는 말씀보다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막1:14)는 말씀을 더 복음적인 말씀으로 보았다. 또한 깔뱅은 이러한 회개가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님을 더욱 강조한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록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원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으로 평생 동안 우리는 회개와 성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깔뱅은 말한다.¹⁸⁵⁾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깔뱅은 회개는 의인의 반응이요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7) 칭의와 성화

회개에 이어 깔뱅은 이제 신앙인의 성화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복음 신앙에 의한 의인, 중생, 양자, 구원을 전제하고 일어나는 회개와 더불어 신앙인은 평생을 통하여 성화에도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신앙인은 이제 실제적으로 의로와져야 한다.

루터가 율법의 고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만을 강조한 반면, 깔뱅은 벨랑히톤이 주장한 의인되고 회개를 시작한 신앙인들이 전생애를 통하여 성취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의 제3사용을 강조한다.

믿는 자는 율법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철저히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듯이, 의인된 사람도 율법을 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깔뱅은 의인받은 성도들이 저 율법이 제시하는 완전함의 목표를 향하여 분투 노력함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율법 말씀은 우리를 완전으로 권고하고,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하여 분투,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제공한다. ... 진실로 우리 기독교자의 생애는 달음질과도 같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과정을 다 달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목표에 가 닿게 하실 것이다.¹⁸⁶⁾

신앙인의 전 생애는 일종의 경건의 실천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에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율법의 기능은 신앙인에게 그의 의무를 알리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의 열심을 불러일으킨다.¹⁸⁷⁾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깔뱅의 성화는 수도원처럼 안으로 내향하는 성화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 삶에서의 성화이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다.

184) *Inst.*, III, 3, 20.

185) *Inst.*, III, 3, 10.

186) *Inst.*, III, 7, 13.

187) *Inst.*, III, 19, 2.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케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을 유일한 목표로 하여 분투 노력해야 한다(롬14:8).¹⁸⁸⁾

이러한 점에서 갈뱅은 신앙인의 삶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특징지운다. 십자가는 구속의 선물로서 뿐만 아니라, 의무와 과제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함과 동시에 그의 전 생애를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였고, 그리스도도 역시 제자들을 자기와의 사랑의 교제로 부르심과 동시에 십자가의 생애로 초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포착해야 한다고 갈뱅은 말한다.¹⁸⁹⁾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단순히 자율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에 있는 것이다.¹⁹⁰⁾

8) 예 정

초판에서부터 계속 지속된 갈뱅의 예정교리는 이 최종판 3권 후반부에서 그 전모가 드러나 있다. 갈뱅은 먼저 교회 정의와 관련해 그의 예정론을 말한다.

갈뱅은 교회의 정의에 있어서 사도신경의 ‘교회를 믿사오며’를 주석하면서 ‘교회’란 단순히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택자들’로서 이미 세상 떠난 성도들까지 이 교회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하나의 머리에 의존하면서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이 자라나는 한 몸이며(엡4:16), 한 신앙과 한 소망, 한 사랑 안에서 함께 살고, 동일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를 이룬다.¹⁹¹⁾ 말하자면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피택자에 대한 사랑에 의존해 있는 것이다.¹⁹²⁾ 그런데 여기에서 이 피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구별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갈뱅은 말한다.

유기된 자와 피택자를 판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오직 우리가 확신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사귄에 돌입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피택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이다.¹⁹³⁾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면서 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론적인 반응과 연결시켰다.

188) *Inst.*, III, 7, 1.

189) *Inst.*, III, 8, 1.

190) *Inst.*, III, 8, 11.

191) *Inst.*, IV, 1, 2.

192) *Inst.*, IV, 1, 3.

193) *Ibid.*



실제로 생명의 은혜 언약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누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한 결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확실히 이와 같은 차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단을 말한다.¹⁹⁴⁾

성경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원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일단 결정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불변하는 계획에 의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멸망받을 사람들도 확정하셨다.¹⁹⁵⁾

즉, 갈뱅은 말씀에의 반응과 구원론과 관련하여 이 이중예정을 말했으며, 그것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종교개혁적 구원론에 만족치 않고, 이 구원의 초월적 근거로서 하나님의 원초적 결단, 바로 그 은혜를 강조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간의 선택과 유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인간의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닌가? 갈뱅은 이를 단호히 부인한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죄를 범하나 이 범 죄는 반드시 인간 자신의 과오임에 틀림없다고 갈뱅은 말한다.¹⁹⁶⁾ 즉, 인간의 자유의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갈뱅은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 이러한 선택과 유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지 피조물인 인간이 그 이유를 물을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갈뱅은 주장한다. 또한 갈뱅은 예정론을 기독교 중심적으로 이해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구원, 생명, 하늘나라의 영생을 찾으려 한다면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원천이요, 구원의 닻이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인고로 오직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난가야 한다. ... 그리스도는 거울이다. 이 거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정을 목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속이기 쉽다.¹⁹⁷⁾

이러한 토대 위에서 갈뱅은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이 어떤 표지들을 통하여 나타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기독교적-구원론적 신앙고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화가 예정의 표지라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어느 정도 신앙과 회개도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성화야말로 가장 두드러진 피택의 표지라고 갈뱅은 말한다. 그리고 이 성화를 주장하기 위해 갈뱅은 엡2:10을 인용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갈뱅은 자신의 성화론적 예정론을 ‘실천적 삼단논법’으로 나타내기도 한다.¹⁹⁸⁾ ‘선택된 사람들은 윤리적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고로 나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처럼 갈뱅은 예정과 구원, 그리고 그 열매인 성화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

194) *Inst.*, III, 21, 1.

195) *Inst.*, III, 21, 7.

196) *Inst.*, III, 23, 8.

197) *Inst.*, III, 24, 5.

198) 이 형기, *op. cit.*, p. 450.



게 생각했다. 그는 3권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한다.

믿는 자들은 행위들을 오직 하나님의 선물들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지들로 여긴다. 이들은 표지들을 보고 자기의 피택을 확인한다. 이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로서 중생의 열매들이기에 성도들은 이 증거를 보고 온갖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기대한다. 이와 같은 열매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들의 양심이 깨끗하다는 사실에 의하여 그들의 신앙을 재확인하며 더욱 기뻐한다. 그러나 이 부르심의 열매를 보고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음을 안다.¹⁹⁹⁾

이처럼 갈뎡의 예정론은 구원론, 기독교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있음을 나타내는 도구였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그런 은혜의 인식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갈뎡은 여기에 성화라는 구원의 열매를 들어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삶이 그 예정을 통한 구원의 증거라며 세상 속에서의 신앙인의 실천적인 모습을 그 누구보다 강조했다.

(4) 제 4 권 : 구원의 외적 수단 - 교회와 성례전

기독교 강요 4권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외적 수단, 또는 외적 보조자’이다. 즉, 앞서 살핀 대로 1, 2, 3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면, 이제 4권은 이 일을 위한 외적인 수단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4권에서 갈뎡은 이러한 외적 수단이 ‘말씀과 성례’이고, 외적 보조자가 ‘목사와 교사’라고 말한다. 이것은 4권 서두에 잘 나타나 있다.

전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그의 마련하여 주신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자들이 되는 것은 복음신앙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와 나태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낳고 그것을 증대시키고, 그 목표에까지 전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적 보조자들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함에 대비하시어 이와 같은 도움까지도 더하여 주셨다. 복음설교가 번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교회에 간직하여 두셨다. 그는 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어(엡4:11)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것을 가르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²⁰⁰⁾

즉, 우리의 구원과 복락은 복음 신앙을 통해서이며, 이 복음 신앙은 복음 설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간직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베풀기 위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4권 역시 구원론의 일부로서, 구원을 위한 ‘수단론’임을 알 수 있다. 그럼 갈뎡이 말한 구원의 외적 수단인 교회와 성례, 그리고 목사와 교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99) *Inst.*, III, 14, 20.

200) *Inst.*, IV, 1, 1.



1) 교 회

실질적으로 칼뱅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내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을 그토록 크게 받은 이유는 칼뱅이 기존의 교회 정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교회론을 내세웠다는 데에 있었다. 그렇다면 칼뱅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그는 프랑소아 1세에게 보내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며, 교회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저들의 교회관을 비판한다. 첫째는 저들이 교회의 형태는 육안으로 보이고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 형태가 무엇보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의 보좌와 그 밑에 종속하는 계층질서적 성직체제에 있다고 하는 점이다. 우리는 반대로 교회란 가시적 외형 없이도 실존할 수 있으며, 이 외형은 저들이 바보처럼 찬양하는 외적인 훌륭함에 국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교회는 두 가지의 표지를 갖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과 성례전을 합당하게 진행하는 것이다.²⁰¹⁾

칼뱅은 교회의 두 가지 표지인 말씀과 성례를 들어 교회의 정의를 말한다. 즉, 이 말씀과 성례가 올바르게 행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칼뱅은 말씀과 성례 외에 ‘가시적 외형 없이도 실존할 수 있는’ 불가시적 교회에 대해서도 말을 한다. 어찌 보면 이 불가시적 교회가 칼뱅의 교회론에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칼뱅은 이 불가시적 교회를 예정론과 결부시켜 더욱 그 의미를 확고히 했다. 이러한 점에서 칼뱅은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택과 그의 내적 부르심을 생각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요, ... 그러나 많은 무리 가운데에 아주 적은 숫자의 선택된 사람들이 있으며 알곡이 많은 쭉정이들 가운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의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비밀스런 선택이기 때문이다.²⁰²⁾

이러한 칼뱅의 교회관은 루터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였다.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티스트(Donatists) 논쟁과 펠라기우스(Pelagius) 논쟁에서 선택교리를 통해 이들을 반박한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²⁰³⁾

그렇다면 칼뱅에게 있어서 가시적 교회란 무엇인가? 이처럼 교회의 정의와 본질에 있어서 선택과 예정, 그리고 그 불가시성이 중요하다면 과연 가시적인 교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칼뱅은 여기에서 불가시적 교회관이 가시적 교회관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가시적인 교회도 중요한 것이라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선택된 자이고 위선자인지를 알 수 없고 그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다. 하기에 칼뱅은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의 판별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에 ‘신앙고백’, ‘삶의 모범’, ‘성례전의 참여’,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회의 회원이라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⁴⁾ 또한

201) Calvin, *Prefactory Address To Ting Francis I*, 6. 이 형기, op. cit., p.452.

202) *Inst.*, IV, 1, 2.

203) 이 형기, op. cit., p. 454.

204) *Inst.*, IV, 1, 8.



이러한 가시적인 회원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이들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에 관한 부분이 첨가된 이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구절은 어느 정도 가시적 교회에 적용된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더불어 형제다운 사귀어 가져야 하고, 이 가시적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며, 마치 하나의 양무리처럼 행동해야 한다.²⁰⁵⁾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칼뱅은 자신의 스트라스부르 목회경험과 키프리아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에 근거하여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하나님은 교회의 품속으로 그의 자녀들을 모으기를 기뻐하시고, 이들이 유아와 어린이로 있을 동안 교회의 도움과 목회로써 양육시키시고, 이들이 장성하여 신앙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교회의 어머니다운 돌봄으로 인도하신다.²⁰⁶⁾

즉, 교회는 신자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회의 어머니로서 역할은 불가시적 교회라기보다는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뒤 이어 이것을 보다 자세히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이 어머니가 그의 태 속에서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낳으시며, 젖을 먹여 양육하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될 때까지 돌보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 학교를 떠날 수 없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 혹은 구원이 불가능할 것이다.²⁰⁷⁾

하지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칼뱅이 이처럼 교회의 기능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본질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이 카톨릭과 틀린 점이기도 하다. 칼뱅은 말씀설교와 성례전, 이를 행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이를 모두 포함하는 교회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이끄는 것이 아니며, 앞서 살폈던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본질이라고 여겼다.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말한 칼뱅은 이제 교회의 또 다른 정의를 내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1:23). 칼뱅은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에 오시는 영역이 교회이며,²⁰⁸⁾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때문에, 성도의 연합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라며(엡4:15) 서로 한 몸이 된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칼뱅은 주장한다.²⁰⁹⁾

205) *Inst.*, IV, 1, 3.

206) *Inst.*, IV, 1, 1.

207) *Inst.*, IV, 1, 4.

208) *Inst.*, IV, 1, 3.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칼뱅의 사상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구원의 외적 수단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를 지배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통치자가 되시며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통치자의 자격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직원들을 구성하시고, 그 직원들에게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현재 이 교회 안에 계셔서 직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즉, 칼뱅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란 개념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말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 교 직

교회의 표지는 앞서 말한 대로 말씀과 성례이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의 목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칼뱅은 말한다. 칼뱅은 이들을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절’, ‘하나님의 성전들’²¹⁰⁾, ‘주님의 전언자’, ‘그리스도의 봉사자들’, 혹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²¹¹⁾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들 역시 교회와 마찬가지로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외적인 보조자,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칼뱅은 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모든 믿는 자들을 한 몸에 연결시키는 인대와 신경조직’이라 부를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²¹²⁾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위에서 모든 것을 성취할 자들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를 위해 ‘직책’을 주셨으며, 또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주셨다.²¹³⁾

그럼 이러한 직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칼뱅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 에베소서 4:11에 근거하여 교사, 목사, 장로, 집사의 4중직을 말한다. 먼저 ‘교사’는 치리와 성례집행, 그리고 권면과 경고의 책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성경해석의 책임만을 맡은 자이다.²¹⁴⁾ 그리고 ‘목사’는 이상의 모든 기능을 행하는 자이다. 칼뱅은 특별히 이 목사직을 사도직의 기능을 물려받은 것으로, 사도들이 행했던 복음의 선포와 죄사함의 세례, 그리고 성만찬을 집행하는 중요한 직으로 보았다.²¹⁵⁾ 하지만 목사직이 사도직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사도직의 경우 목회의 대상이 온 세상인 반면, 목사직의 목회의 대상은 개교회라는 점이다. 이 개교회에서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고, 교인들의 치리와 권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목사직인 것이다.²¹⁶⁾ 칼뱅은 이러한 목사직의 근거를 성서에 나타난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스를 통해 증거한다.

‘장로직’은 ‘다스리는 자들’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자들이다. 이들은 신약에 나오는 목사직과 대등한 장로직은 아니다. 다만 목사를 도와 교인들을 치리하고 그들의 생활을 권면하는 역할을 감당한다.²¹⁷⁾

209) *Inst.*, IV, 3, 2.

210) *Inst.*, IV, 3, 1.

211) *Inst.*, IV, 3, 5.

212) *Inst.*, IV, 3, 2.

213) *Ibid.*

214) *Inst.*, IV, 3, 4.

215) *Inst.*, IV, 3, 6.

216) *Ibid.*

217) *Inst.*, IV, 3, 8.



‘집사직’은 사도행전 6장에 근거한 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를 돌보고, 교회의 모든 사무 행정을 맡는다. 갈뱅은 특별히 이 집사직은 여성이 맡을 수 있다고 하여, 여성들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중에서 비록 한 직분이지만 유일한 길을 열어 놓기도 하였다.²¹⁸⁾

그런데 이상에서 우리는 크게 2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첫째는 갈뱅이 이러한 교직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그 근거를 성서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즉 갈뱅은 카톨릭의 인위적인 교직제도에 반대하여, 또 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서에서 교직의 근거를 찾아냈다. 둘째로 이러한 교직을 갈뱅은 예정론과 성화론에 근거하여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먼저 갈뱅은 사도들이 ‘주님 자신의 입’ 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고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서,²¹⁹⁾ 교회의 교역자들 역시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들을 보고,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들이 높은 표준에 준하여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갈뱅은 말한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와 금식 가운데 투표로 선출한 것처럼(행14:23), 또 초대교회가 집사들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 선출한 것처럼(행6:2~7) 교회의 직분자들은 회중의 민주주의적 협조를 얻어 선출되어야 한다고 갈뱅은 말한다.²²⁰⁾ 이러한 점에 있어서 갈뱅의 교직선출에 있어서의 소명과 선출에 대한 주장은 카톨릭 교회와 영국 성공회, 루터교회 등의 지명제도 아니요, 회중교회나 침례교회의 회중만의 선출도 아닌, 양자의 장점을 살린 훌륭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²²¹⁾

3) 성례전

갈뱅은 로마 카톨릭의 7성례와는 달리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라 주장하며, 그 중심이 말씀에 있는데, 바로 이 성례전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 이라고 말한다.²²²⁾ 갈뱅은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에 비로소 보이는 표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²²³⁾ 고 말하면서 카톨릭과는 달리 성례전에 참여하기 전에 무엇보다 설교를 통하여 신앙을 가져야 하며, ‘약속 혹은 복음’ 이 먼저 선행되지 않은 성례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갈뱅의 성례는 복음 말씀에 대한 일종의 부록이었으며,²²⁴⁾ 복음 혹은 ‘약속 그 자체’ 를 감각에 호소하면서 ‘확인’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갈뱅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성례를 ‘불가시적인 은혜의 가시적인 형태’ 라 정의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례란 외적인 표지로서 주님께서는 이 표지에 의해 믿는 자를 향하신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양심에 인치시고, ... 이에 대한 반응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주님의 존전에서, 그리고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다.²²⁵⁾

또한 갈뱅은 성례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신빙성을 더하여 주는 언약의 표증이기에 아우구

218) *Inst.*, IV, 3, 9.

219) *Inst.*, IV, 3, 13.

220) *Inst.*, IV, 3, 15.

221) 이 형기, *op. cit.*, p. 472.

222) *Inst.*, IV, 14, 2.

223) *Inst.*, IV, 14, 4.

224) *Inst.*, IV, 14, 3.

225) *Inst.*, IV, 1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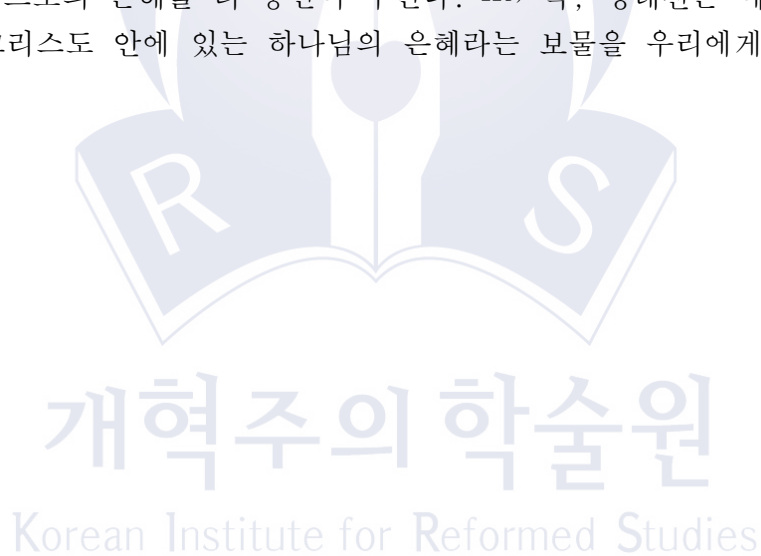


스티누스를 따라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를 정의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성례를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우리의 능력에 알맞은 매체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²²⁶⁾

그럼 이 성례의 효력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칼뱅은 여기에서도 역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강조한다. 주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성례전으로 확인하실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야만 이 말씀과 성례전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린다. 즉,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은 단순히 귀를 때릴 뿐이요, 성례전도 단순히 눈앞에 전시될 뿐이고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칼뱅은 말한다.²²⁷⁾

이처럼 칼뱅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또, 말씀과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다. 이러한 성례론의 주장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좌경화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에 있어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을 강조한 칼뱅신학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같은 성례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칼뱅은 이 성례전은 무슨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다고 말한다. 설교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성례전의 주제 혹은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례전은 설교 말씀과 함께 거행되기에 성례전을 통하여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육성시키고, 그리스도를 더 충만이 소유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충만이 누린다.’²²⁸⁾ 즉,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칼뱅은 주장한다.²²⁹⁾



Ⅲ. 결 론

우리는 이상에서 칼뱅의 삶과 기독교 강요의 전반적인 고찰, 그리고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내용을 각 권별로 살펴보았다. 종교개혁자 칼뱅. 그는 그의 평생에 걸쳐서 이룩한 이 대작을

226) *Inst.*, IV, 14, 6.

227) *Inst.*, IV, 14, 8.

228) *Inst.*, IV, 14, 16.

229) *Inst.*, IV, 14, 17.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구원’ 이었다. 칼뱅은 다름 아닌 성경의 주제를 구원이라 보고 이 구원을 보다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 기독교 강요를 써 내려간 것이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그 타당성을 가진다.

먼저 그 저작 목적에서 우리는 이 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살핀 바 대로 칼뱅의 기독교 강요 저작 의도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프랑스 기독교인들의 변호를 위함이었으며, 둘째는 기독교 교리의 입문서 내지는 교의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물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후자이다.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서에서 내가 목적인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하며, 아무 장애 없이 그 안에서 진보하여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교 종교의 모든 부분을 통괄 개진하였고, 또 그것을 적절한 순서로 배열하였으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기만 하면 성서 속에서 특별히 무엇을 찾아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을 어떤 목적에 연관시켜야 하는 가를 결정짓는 데 어떠한 곤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²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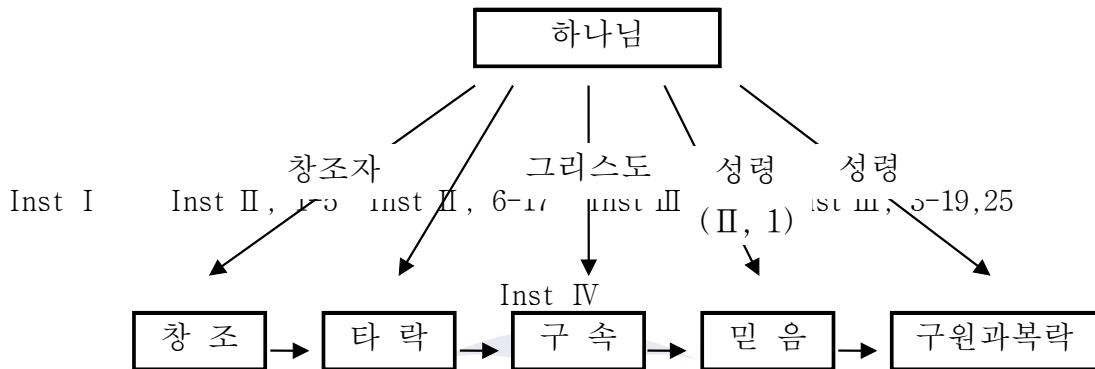
즉,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쓴 이유는 첫째, ‘성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였고, 둘째는 ‘그 내용을 무슨 목적에 연계시켜야 하는가?’ 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펴 본 내용과 결합하여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독교 강요 전 4권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럼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1권에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다음 2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주 하나님’ 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에게 3권에서의 내용이 일어나야 한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원한 복락에 참여함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목적, ‘그 내용을 무슨 목적에 연계 시켜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 우리는 성서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구원이라는 목적에 연계시켜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4권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그것을 확실히 다지는 것을 돕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지켜야 할 것과, 있어야 할 자리를 명확히 말해 준다. 이처럼 우리는 기독교 강요의 저작 목적에서부터 그것이 구원론적인 성격을 지닌 책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독교 강요의 내용상의 구조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기독교 강요에 내포된 강한 구원론적인 성격을 보게 된다. 칼뱅은 1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2권에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말한다. 그리고 3권에서는 이러한 구원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4권에서는 교회와 성례전을 통해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복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의 구원의 서정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즉, 칼뱅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또 그 구원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의 기독교 강요를 구성한 것이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²³¹⁾

230) *Opp.*, I, 256 f. Wendel, *op. cit.*, p. 157.

231) 한국칼빈학회역음, 「칼빈신학해설」(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p. 21.



이처럼 칼뱅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와 신학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구원을 가장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믿음의 문제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그친 것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정말로 칼뱅이 평생에 걸쳐 이루려고 했던 것이 구원이었는가? 물론 정답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 볼 수 있다. 그럼 왜 칼뱅은 그토록 구원을 강조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앞선 질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성립되는 것이다. 칼뱅이 구원을 자신의 신학사상의 중심 주제로 잡고 강조한 이유,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오직 당신의 선하신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어찌 보면 이것이 칼뱅의 주된 의도였는지도 모른다.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그 합당한 행할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칼뱅신학의 최종 목표점이었던 것이다.

그럼 그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핀 대로 이것은 철저한 성화의 길이며, 복음전도의 길이다. 칼뱅이 율법의 제3사용과 성화론에서 말했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와 같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전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 성화의 삶의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하며,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 즉,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을 말씀과 우리의 성화된 삶을 통해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칼뱅신학이 구원론적 성격을 지녔던 주된 이유였다.

믿음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시대, 교회의 종답들은 나날이 늘어가지만, 세상으로부터 버림만 받는 시대,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대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위기들에서 벗어나고, 다가오는 새 천년을 준비할 것인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새롭게 태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재언의 여지없이 바로 바른 신앙의 회복일



것이다. 올바르게 참된 신앙의 회복만이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로 서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른 신앙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꺾병의 구원론적 신앙이 되어야 한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최악된 우리를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화된 삶으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다하게 될 때, 어두웠던 시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일어났던 그 기적은 다시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개혁의 불꽃이 일어나고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다음을 요구하신다. ‘감사하라! 헌신하라!’ 그리고 이 요구에 응답했던 꺾병의 대답은 다시 오늘의 자리에선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내 심장을 주님께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J'offre à Dieu mon coeur comme immolé)

개혁주의 학술원

참고 문헌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1. John Calvin, F.L. Battles tra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86)
2.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 Eerdmans, 1969)
3. Williston Walker, *John Calvin: The Organiser of Reformed Protestantism* (New York : Schocken Books, 1969)
4. Jean Cadier, *The Man God Mastered* (Grand Rapids : Eerdmans, 1960)
5. François Wendel,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역, 「칼빈의 신학서론」 (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97)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6. Emile Doumergue, 이 오갑 역, 「칼빈사상의 성격과 구조」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5)
7. J.T. McNeil, 양 낙홍 역, 「칼빈주의의 역사와 성격」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8. Theodore Beza, 김 동현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 목회자료사, 1999)
9. 김종흡 외 3인 공역, 「기독교 강요」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9)
10. 이 형기, 「기독교 강요 요약」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이 글은 안명준교수가 제작한 칼빈 CD에서 퍼온 전용록의 글입니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